



北韓의 對外政策 및 對南 戰略分析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4. 11.

研究機關： 東國大學校 安保研究所

研究責任者： 閔 丙 天

目 次

一. 序 言	5
二. 外交目標斗 外交政策의 基本路線	7
三. 外交政策의 變遷斗 外交政策의 戰術的 轉換	11
四. 外交政策의 樹立 및 執行機構	14
五. 外交 現況 (政治・經濟・軍事外交)	18
1. 政治外交 現況 (外交關係樹立 現況)	18
2. 經濟外交 現況 (對外貿易 現況)	23
3. 軍事外交 現況 (軍事條約 現況)	29
六. 各 陣營別 外交	33
1. 對共產圈 外交	33
(1) 對共產圈政策	33
(2) 對中・蘇 및 東歐圈關係	35
2. 對中立圈外交	37
(1) 對中立圈政策	37
(2) 對亞・阿・中南美關係	38
3. 對西方圈外交	41
(1) 對西方圈政策	41
(2) 對日關係	42
(3) 對美關係	45
(4) 對西歐 및 其他關係	46

七. 对 UN 外交	47
1. 对 UN 政策	49
2. 对 UN 關係	51
3. 「韓國問題」決議案	55
八. 对南關係	59
1. 統一基本戰略斗 平和統一攻勢	59
2. 南北對話(人道的 對話斗 政治的 對話)	71
九. 結 論	83
※ 註 釈	88
※ 主要參考書籍	107

〈表〉 目 次

〈表-1〉	: 北韓의 外交體系	16
〈表-2〉	: 北韓의 外交部 機構	17
〈表-3〉	: 北韓의 大使級 外交關係 樹立 現況	20
〈表-4〉	: 北韓의 總領事館 및 通商代表部 設置現況	22
〈表-5〉	: 地域別 南北韓 外交關係 比較	22
〈表-6〉 a:	北韓의 對外貿易의 推移	24
	b: 韓國의 對外貿易의 推移	25
〈表-7〉	: 北韓의 埠營別 貿易規模	26
〈表-8〉	: 南北韓의 貿易依存度 比較	27
〈表-9〉	: 北韓의 受援 現況	28
〈表-10〉 a:	北韓의 6 個年計劃目標의 總體的 指標	28
	b: 76 年度 南北韓의 總量指標 比較	29
〈表-11〉	: 南北韓의 軍事力 比較	32
〈表-12〉	: 南北韓의 對日貿易 推移	44
〈表-13〉	: UN 의 南北韓 加入申請處理狀況	53
〈表-14〉	: 韓國問題에 대한 UN 投票性向	58
〈表-15〉	: 北韓의 「南朝鮮革命」戰略	61
〈表-16〉	: 北韓의 祖國統一과 「南朝鮮革命」對比	63
〈表-17〉	: 北韓의 南北聯邦制案 比較	69
〈表-18〉	: 北韓의 統一戰略의 兩面	70

〈表 - 19〉 : 北韓의 統一戰略	70
〈表 - 20〉 : 南北赤十字會談에서 提起된 雙方提案	73
〈表 - 21〉 : 南北調節委에서 提起된 雙方提案	80
〈表 - 22〉 : 南北韓 雙方이 主張하는 交流와 合作의 內容	80
〈表 - 23〉 : 南北調節委의 機能 및 機構	82
〈表 - 24〉 : 南北韓의 目標 比較	87

一 . 序 言

1次世界大戰以後의 Versailles 體制가 約 20年 뒤에 互解된 것처럼 2次大戰以後의 Yalta 體制도 그程度의 期間이 經過한 후에 崩壞되기 始作하여 美·蘇二元體制가 이제는 再編成段階에 이르렀다. 이는 美·蘇平和共存路線인 Pax Russo-Americana 體制의 變質과 政治的 多元化現象에서 派生되는 새로운 國際秩序의 登場을 意味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國際秩序의 構造的 改編과 함께 지금 世界情勢는 東西間의 知解라는 새로운 局面으로 急転하여 冷戰의 Ideologie는 突利앞에 褪色해가고 對決보다는 協商과 緊張緩和의 氣運이 세차게 일고 있다.

이러한 國際情勢의 波長은 結局 韓半島에도 미침으로써 南北韓은 모두 既存對外政策에 새로운 調整을 加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1) 이미 北韓은 71年 11月 15日 勞動黨 第5期3次 全員會議에서 外交政策의 戰術的 轉換을 取行함으로써 새로운 機會와 挑戰을 提起한 國際情勢에 맞도록 國際政策과 아울러 韓半島政策을 修正하는 融通性과 機敏性을 發揮했던 것이다. 2) 그래서 오늘날 北韓은 對外政策을 柔軟路線으로 變更하여 自主·突利에 立脚한 多邊外交의 積極的 展開과 함께 平和指向的 對外姿勢를 露骨化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오늘날 北韓은 「對共產圈外交」, 「對中立圈外交」, 「對西方圈外交」를 同時的으로 推進해 나가는 広域外交에 注力하는 한편 從來의 段階的 接近類型을 벗어난 일약 南北韓 同時修交라는 戰略을 펴고 있다. 이렇게 해서 國際的 地位向上과 南北韓 同等地位

確保 뿐만 아니라 新 6 個年經濟計劃(71 ~ 76 年) 遂行에 必要한 資本과 技術導入을 目標로 한 北韓의 當面 外交政策은 現實的이고 實利追求的인 立場에서 日本과 西歐諸國등 自由陣營에서까지 이른바 南北韓 等距離政策을 誘導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韓國은 73 年 「 6.23 平和統一外交宣言 」에 의해 外交政策의 劃期的 轉換을 斷行한 것을 비롯하여 74 年에 들어서 지난 1 月 18 日 北韓에 대해 不可侵協定을 締結하여 統一을 이룩할 때까지 平和共存을 해나갈 것은 提議한 果敢한 對北政策을 闡明하는데까지 이르렀다. 如斯한 韓國의 對外政策의 轉換은 結局 北韓의 UN 進出의 突破口가 되기도 하여 南北韓의 外交競爭은 마침내 UN 舞台에까지 飛火하는 段階에 到達하였다.

이렇게 보면 北韓의 對外面에서의 挑戰은 그 어느 때보다 增大되었고,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南北韓間에는 熾烈한 外交戰爭의 時代가 開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本稿에서는 北韓外交에 대한 全般的 分析을 試圖해 보고자 한다.

二. 外交目標의 外交政策의 基本路線

(1) 먼저北韓의 所謂「勞動黨規約」에 의하면 『朝鮮勞動黨의 当面 目的은 共和國 北半部에서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保障 하며 全國的 範圍에서 反帝·反封建的 民主主義革命의 課業을 遂行하는데 있으며, 最終目的은 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所謂『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社會主義憲法』은 5條에서 『北半部에서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이룩하며, 全國的 範圍에서 外勢를 물리치고 民主主義的 基礎 위에서 祖國을 平和의 으로 統一하며 完全한 民族的 獨立을 達成하기 위하여 鬭爭한다』고 明文化하여 社會主義建設과 平和統一(今 共產黨統一) 達成이라는 二大課業이 바로 北韓政權의 革命課業인 同時에 基本目標임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最終的으로 韓半島에 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할 것을 總體的 理想으로 삼고 있는 바로 金日成이 追求하고 있는 基本的인 戰略이며 革命課業인 것이다. 따라서 北韓政權의 모든 對内外政策은 이러한 目標와 關聯하여 推進되고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때문에 北韓의 外交目標은 한마디로 위와 같은 革命課業을 遂行하는데 있어 有利한 外的 條件을 形成하는데 있다. 즉 『變遷하는 國際情勢의 趨勢에 適応하여 平和統一과 나라의 社會主義建設에 有利하게 對外的 關係를 造成』하는데 있다.⁵⁾ 그리하여 그동안 北韓은 ① 自體의 防衛體制를 確立하고 安全을 維持하기 위한 社會主義陣營과의 團結과 紐帶

固執하고 帝國主義를 反對하는 世界 모든 나라 人民들과 固執하며,

「民主主義와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原則에서 社會主義 나라들과

的 및 政治·經濟·文化的 關係를 맺는다. 國家는 「마르크스-레

닌」 平等과 自主性, 相互尊重과 內政不干涉, 互惠의 原則에서 國家

便한다. 國家는 우리 나라를 友好的으로 接하는 모든 나라들과 完

고 있는 바, 『北韓은 對外關係에서 完全한 平等權과 自主權을 行

고 하였다. 그리고 新憲法에서도 對外政策의 基本路線을 柔文化하

를 強化하며, 唯相互와 世界의 鞏固한 平和를 위하여 圖爭한다』⁶⁾

統一獨立을 支持·聲援하는 모든 나라들과 平和愛好人民들과의 親善

나라 勤勞大眾들과의 國際主義的 固執을 鞏固히 하며, 우리 나라의

鮮人民과 偉대한 蘇聯, 中國 및 社會主義 諸國家 人民들과 모든

친한 親善을 圖謀한다』⁶⁾ (13項) 고 하였고, 黨規約에서는 『...朝

하여 圖爭하는 隣邦과 平和를 愛好하는 各 國家, 各 民族들과 是

에 따라 設定되 왔다. 「勞動黨綱領」에서는 『世界의 平和를 爲

(2) 다음에 北韓의 外交政策의 基本路線도 역시 이러한 外交目標

外交目標로 삼아 왔다.

向上 및 統一方案에 대한 國際的 支援獲得을 이 다섯가지를 主된

⑤ 韓國의 國際的 地位 弱화 및 孤立化와 北韓의 國際的 地位

帶增進 ④ 毛沢東의 中間地帶論의 立脚點 反美統一戰線形成

과 支援를 獲得하기 爲한 相異한 社會制度를 가진 國家들과의 紐

與 政治的 支援을 沮止하려는 反帝·反殖民主義 ③ 國際的 承認

強化 ② 對南赤化에 決定的 妨害要因인 美國의 對韓國 軍事的

그들의 民族解放鬪爭과 革命鬪爭을 적극 支持·支援한다』⁸⁾ (16條) 고 하였다.

이렇게 볼때 北韓의 外交政策의 基本路線은, ①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原則에 立脚한 共產陣營과의 紐帶強化 ② 相異한 社會制度를 가진 國家들과의 平和的 共存에 대한 Lenin的 原則에 立脚한 友邦的 連繫設定 ③ 亞·阿·中南美諸國의 反帝·反植民 解放鬪爭 支援과 이들 民族主義的 獨立國家들과의 友好關係樹立 ④ 友好協調的 資本主義諸國(西方諸國)과의 紐帶關係設定과 經濟·文化交流의 推進등으로 要約할 수 있다.⁹⁾

그런데 이같은 基本路線은 기실 蘇聯 및 中共의 外交路線의 範疇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蘇聯外交의 基本路線은, ① 共產主義建設에 有利한 國際情勢造成 ② 社會主義諸國間의 團結 및 協力 ③ 民族解放運動의 支援 및 開發途上國 支援 ④ 社會體制가 다른 國家들과의 平和共存 ⑤ 帝國主義 侵略 粉砕등으로 要約될 수 있고,¹⁰⁾ 中共의 基本外交路線은 ①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原則에 立脚한 社會主義諸國과 友好·相互協調·協力關係 增進 ② 被壓迫人民과 被抑壓民族의 革命鬪爭支援 ③ 平和5原則에 基礎한 社會制度가 相異한 諸國과의 平和共存과 帝國主義의 侵略政策 및 霸權主義 反對등 이른바 外交3原則에 依拠하고 있다.¹¹⁾

그러나 蘇聯이나 中共의 外交政策의 根幹을 보면 Marx-Lenin 主義路線에 따른 世界革命外交로 集約된다.¹²⁾ 다만 具體的인 戰術面에 있어서 國際情勢와 与件에 따라 伸縮性있게 外交政策을 適用시키고 있다. 즉 柔軟性戰略을 驅使하면서 革命外交와 平和外交

를 適切히 展開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¹³⁾ 北韓도 역시 自處하는
바와 같이 世界革命의 一翼을 担当한 者로서 「東方의 哨所」役割
을 強調해 왔는데, 『朝鮮革命은 世界革命의 一環이며 이것을 遂
行하는 것은 世界革命의 發展에 畵與하는 것』¹⁴⁾ 이라고 한 것이라
든지 『우리 黨은 ……世界革命力量強化에 實質적으로 畵與하는
「프롤레타리아」 國際的 義務를 圓滿히 遂行하고 있다』¹⁵⁾고 한것
만 보아도 이를 端的으로 말하고 있다. 이와같이 北韓의 外交政
策路綫을 中共 및 蘇聯外交의 基本路綫의 테두리에 있으며, 그런
意味에서 外交面에서의 「自主路綫」이란 것도 結局 그테두리를 벗
어날수 없는 外交戰術에 不適當한 것이라 할수 있다.¹⁶⁾

三. 外交政策의 變遷과

外交政策의 戰術的 轉換

(1) 그동안 北韓外交의 基軸을 이뤘은 對中·蘇外交의 偏向程度에 따라 外交政策의 變遷過程을 一瞥하면, 大體로 5 段階로 区分해 볼 수 있다. 第1 段階는 48年 政權樹立時부터 55년까지의 對蘇一辺倒 接近期, 第2 段階는 56년부터 61년까지의 多元的 對外接觸期, 第3 段階는 62년부터 64년까지의 對中共接近期, 第4 段階는 65년부터 68년까지의 對蘇關係改善 및 對中共關係 疎遠期, 그리고 第5 段階는 69년부터 現在까지의 對中·蘇 同時的 接近 및 對外政策의 戰術的 轉換期이다.

政權樹立 후부터 50年代에 걸쳐 對共產圈外交에 注力해 온 北韓은 60年代에 접어들어 中·蘇間 對立의 激化, 亞·阿諸國의 國際舞臺에의 大舉進出과 게다가 60年 第15次 UN總會에서의 南北韓 同時招請問題에 대한 最初의 學論등을 契機로 하여 外交活動의 積極的인 展開가 要請됨에 따라 이른바 反帝·反植民 民族解放의 旗幟를 내세우면서 亞·阿·中南美諸國에 대한 浸透外交를 本格化하여 多元的 對外接觸에 腐心하였다. ¹⁷⁾ 그리하여 中·蘇間 對立의 渦中에서 66年 8月 所謂 「自主路線」을 宣稱한 北韓은 對中·蘇 關係에 있어 中立을 維持함과 同時에 中立諸國은 勿論 自由陣營에 까지 浸透努力을 傾注하였다.

70年代에 들어와서는 共產圈의 多元化, 美·中共의 和解 및 關

係改善, 美·蘇의 平和共存體制化 및 協調體制構築, 그리고 日·中共의 關係正常化 등 緊張緩和와 勢力關係의 構造的 改編이라는 國際情勢의 흐름에 맞춰 自主와 實利에 立脚한 「對共產圈外交」, 「對中立圈外交」, 「對西方圈外交」를 同時的으로 推進해 나가는 広範圍한 多邊外交를 指向하고 있다.

(2) 그래서 北韓은 70年 11月 勞動黨 第5次大會에서 『國際情勢는 싸우는 人民에게 有利하게 展開되고 있다』고 評價한데¹⁸⁾ 이어 71年 11月 15日 勞動黨 第5期 3次 全員會議에서 「國際情勢에서 提起된 몇가지 問題」에 대해 論議한 후 「當面한 諸問題의 戰術的 轉換」에 관하여 決定하였다.¹⁹⁾ 여기서 北韓은 急變하는 國際情勢를 分析하고 그에 對処하기 위해 外交政策의 戰術的 轉換을 기함으로써 自主·實利 柔軟外交路線을 追求함과 同時에 平和攻勢를 橫極化하기로 하였다. 特히 同 會議는 71年 7月 Nixon 美大統領의 中共訪問 決定이 發表된 후에 開催된 會議만큼 北韓은 앞으로 展開될 國際情勢에 대해 公式的으로 論議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當面한 諸問題의 戰術的 轉換」이라는 內容을 決定하고, ① 韓國의 統一問題에 있어서는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代替하며, ② 對日關係는 正常化를 이룩함으로써 韓·日條約이 自動廢棄되게 하며, ③ 對美關係에 있어서는 우선 韓國과 平和協定을 締結키 위해 暫定的으로 過去의 態度를 약간 柔軟化하기로 政策轉換을 한 것으로 보인다.²⁰⁾ 이를 契機로 北韓은 日本에 대해서는 關係正常化의 前提條件으로 내세웠던 韓·日條約의 廢棄를 問題삼지 않겠다고

하면서 對日接近을 적극 推進키로 하였으며, 美國에 對해서는 駐韓 美軍의 撤收 前이라도 關係改善을 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이다. 이러한 對外政策의 戰術的 轉換으로 말미암은 北韓의 對外姿勢의 變化는 그 후 對外關係의 展開形態에 重大한 變化를 일으켰다. 近者에 北韓의 『앞으로 南北韓의 對해 다같이 公平한 政策을 適用하려는 모든 資本主義國家들과 外交關係를 樹立할 用意가 있다』²¹⁾는 說明도 結局 그러한 對外政策의 戰術的 轉換에 따른 것이다. 對西方國家 門戶開放政策을 피나가겠다는 것은 勿論 美利外交로써 새로운 國際的 狀況에 對処코자 하는 苦心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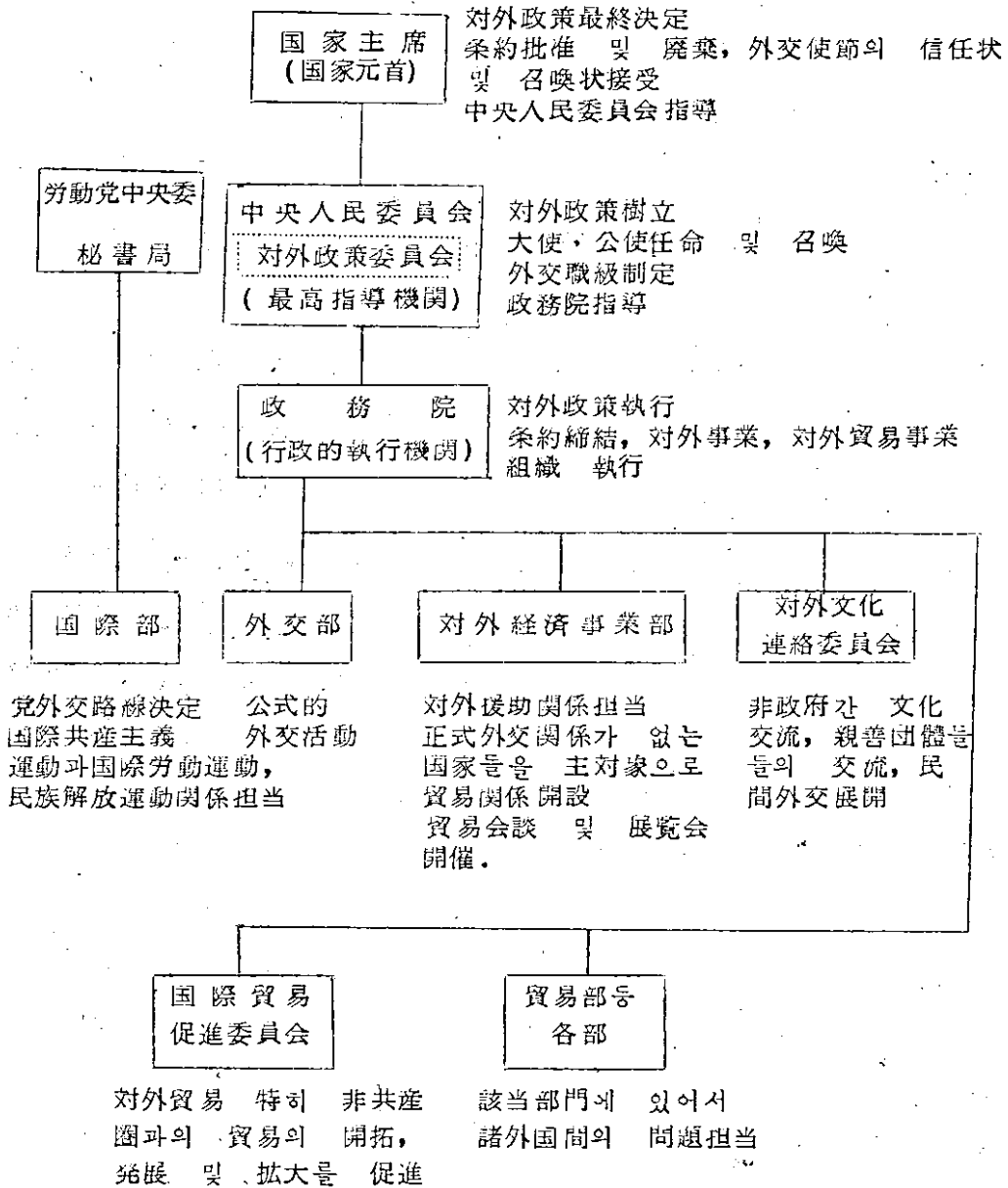
四. 外交政策의 樹立 및 執行機構

北韓의 外交政策의 樹立 및 執行機構를 보면, 먼저 舊憲法 37條에는 對外政策에 관한 基本原則의 樹立은 「最高人民會議」의 權限에 속한다(2項)고 規定되 있었으며, 49條에는 「最高人民會議」常任委員會가 外交分野에서 相當한 任務를 明示하고 있었는데 그 內容은 ① 外國과의 條約의 批准 및 廢棄(8項), ② 外國에 駐在하는 大使와 公使의 任命 및 召喚(9項), ③ 外國使節의 信任 및 召喚狀의 接受(10項) 등이었다. 22)

그러나 新憲法에서는 이러한 權限은 新設된 憲法機關인 「國家主席」이나 「中央人民委員會」에 속하는 것으로 規定해 있다. 즉 위의 ①과 ③의 權限은 「國家主席」에(96條와 97條), ②의 權限은 「中央人民委員會」에 속한다(103條8項)고 規定하고 있다. 그런데 舊憲法에서는 內閣의 首相은 다만 「政府의 首席」으로만 表示돼 있어(59條1項) 國家元首가 누구인가라는 規定이 없었기 때문에 象徴의 이긴 하나 蘇聯의 경우처럼 外國使節의 信任狀을 接受하는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議長」(崔庸健)이 慣例적으로 國家元首資格이었지만, 新憲法에서는 北韓의 『主席은 國家의 首班이며 國家主權을 代表한다』(89條)고 하여 「國家主席」(金日成)이 國家元首임을 明文化하였다. 때문에 위의 ①과 ③과 같은 權限이 「國家主席」에 賦與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國家主席」은 名義相符한 外交政策의 最高決定機關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對外政策의 基本原則을 樹立하는 것은 舊憲法에서와 같이

「最高人民會議」의 權限에 수하나(76條2項), 對外政策을 實際로 樹立하는 것은 「中央人民委員會」의 權限에 수하나(103條1項). 그로서 「中央人民委員會」는 外交職權을 制定하는 權限도 갖는다. (同10項). 이 「中央人民委員會」에는 对内政策·對外政策·國防·司法安全等 部門別 4個의 委員會가 있는데, 外交部門은 이중 「對外政策委員會」가 맡는다. 한편 「政務院」(內閣)은 對外政策執行 機關으로서 條約締結權과 對外事業權을 가지며(109條7項), 對外貿易事業을 組織·執行한다(同5項). 「政務院」의 外交執行機關인 「外交部」는 公式的인 外交活動을 하며, 이와는 別途로 經濟的인 國際協力關係나 非政治的인 民間外交 등의 對外活動은 「對外經濟事業部」, 「對外文化連絡委員會」, 「貿易部」, 「國際貿易促進委員會」 등의 機關이 遂行하고 있다. 또한 党内에 있는 外交關係機關으로서는 中央委 秘書局 傘下の 「國際部」가 있으며, 이 機關은 獨自的으로 후은 政務院의 對外機關의 權限을 調整하면서 政策樹立에 關한 方面 以下의 關係를 保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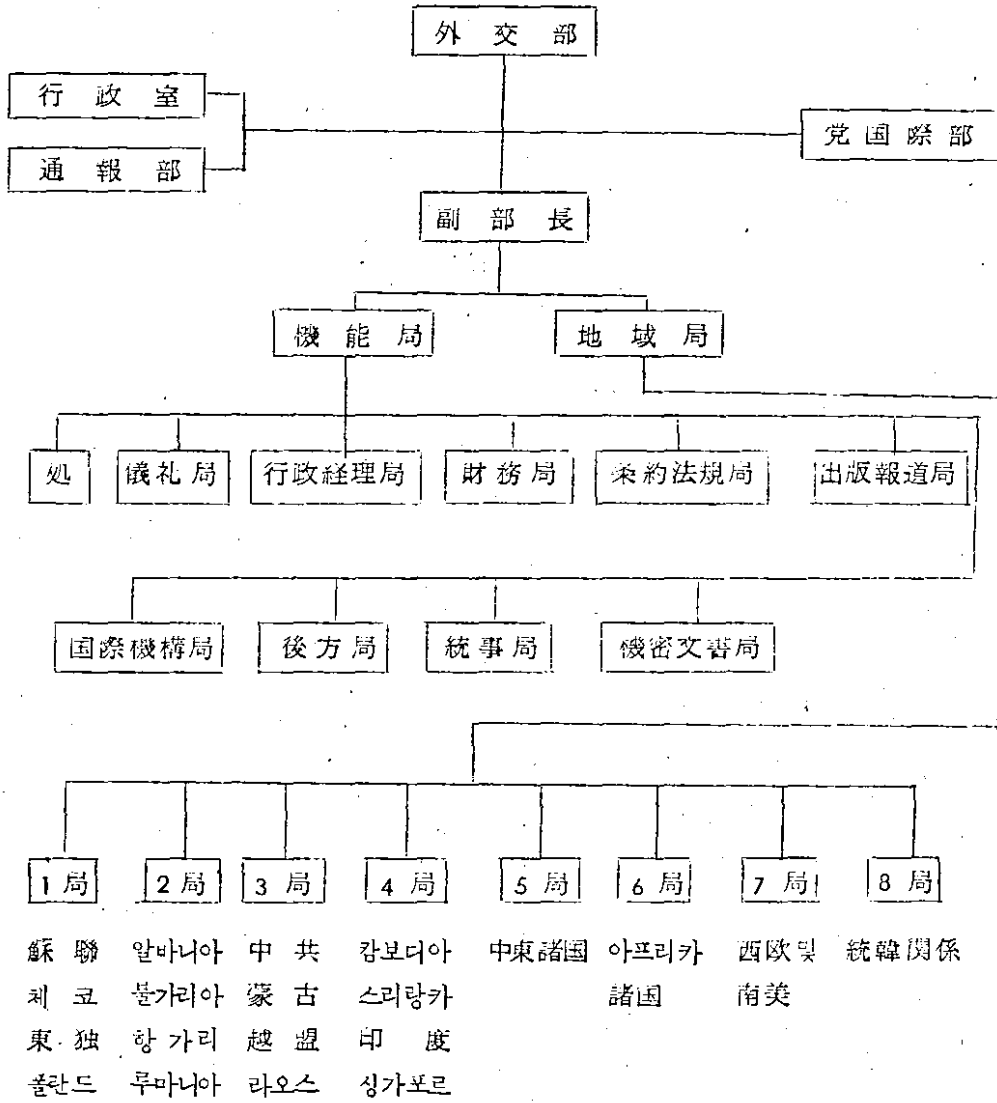
〈表-1〉 〈北韓의 外交體系〉



資料：東亞日報社 安保統一問題調查研究所，「安保統一問題 基本資料集」(北韓篇)，1972，p. 531을 參考로 하여 作成한 것임.

〈表-2〉

〈北韓의 外交部機構〉



資料：國際問題研究所，「北韓現況」，1970，p.38.

五 . 外交現況 (政治 · 經濟 · 軍事外交)

1. 政治外交現況 (外交關係樹立現況)

74年5月現在 北韓이 大使級 外交關係를 樹立한 國家는 共產
圈 13個國, 中立圈(西方圈包含) 57個國 都合 70個國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斷交狀態에 있는 「케냐」, 「가나」, 「차드」,
中央「아프리카」, 「스리랑카」, 「크메르」, 「칠레」등 7個國을 除
외한 63個國²³⁾과 正式으로 大使級 外交關係를 樹立하였다.²⁴⁾
이들 國家중 現在 南北韓의 共同修交國을 보면, 亞細亞에서 「말레이
지아」 · 「인도네시아」 · 印度 · 「방글라데쉬」 · 「이란」 · 「아프카니스
탄」 · 「말디브」 · 「네팔」 · 「라오스」, 阿洲에서 「우간다」 · 「카메
룬」 · 「다호메」 · 「세네갈」 · 「리베리아」 · 「감비아」 · 「자이레」 ·
「말라가시」 · 「시에라레온」 · 「루안다」 · 「토고」 · 「오트볼타」 ·
「모리셔스」 · 「가봉」, 歐洲에서 「스웨덴」 · 「노르웨이」 · 「덴마크」
「아이슬랜드」 · 「핀란드」 · 「말타」, 美洲에서 「아르헨티나」 · 「코
스타리카」 · 「가이아나」등 모두 32個國이나 된다. 이들 修交擬
合國중 「핀란드」 · 「인도네시아」 · 印度 · 「방글라데쉬」 · 「아프카니
스탄」 · 「네팔」 · 「라오스」를 除外한 25個國은 당초 모두 韓國하
고만 修交했던 國家였으나 70年代에 와서 北韓과 修交한 나라 들이
다. 北韓은 多邊外交를 積極化하기 始作한 70年代에 와서 大使級
外交關係를 樹立한 國家는 <表-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려
36個國이나 되며, 73年 한 해동안의 修交國만도 16個國이나 된다.
그리고 北韓의 常駐大使館 設置現況을 보면 亞細亞에 8個國, 阿洲에

16 個国, 中東에 6 個国, 歐洲에 13 個国, 美洲에 2 個国 都合 45 個国이 된다.

한편 北韓은 「버마」, 「싱가포르」 2 個国과 總領事關係를 맺고 있는데,²⁵⁾ 韓國도 이들 國家에 總領事館을 設置하고 있어 서로 競合을 이루고 있다. 또한 北韓은 「오스트리아」, 「레바논」, 「쿠웨이트」, 「스위스」에 通商代表部를, 仏蘭西에 民間通商事務所를 設置하고²⁶⁾ 있으며, 그밖에 「뉴욕」에 UN代表部를, 「제네바」에 UN 및 國際機構代表部를 設置하고 있다. 韓國도 「레바논」, 「쿠웨이트」에 通商代表部를, 그리고 「뉴욕」에 UN代表部, 「제네바」에 UN 및 國際機構代表部를 設置하고 있어 역시 北韓과 競合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北韓은 實際 大使級 外交關係를 樹立한 63 個国에다 總領事館 設置 2 個国과 通商代表部 設置 5 個国을 합하면 모두 70 個国과 外交的 關係를 맺고 있는 셈이 된다. 이것은 <表-5>에 나타난 바와 같이 現在 韓國이 外交的 關係를 맺고 있는 101 個国(大使關係 94 個国, 總領事關係 4 個国, 通商代表部 3 個国)에 比하면 劣勢에 있는 편이지만 大使가 常駐하고 있는 公館으로 比較한다면 韓國이 57 個国, 北韓이 45 個国으로서 큰 差異가 없는 셈이다. 다음에 北韓의 大使級 外交關係樹立 現況과 總領事館 및 通商代表部 設置現況 그리고 地域別 南北韓 外交關係 現況 比較를 보면 <表3~5>와 같다.

〈表-3〉〈北韓의 大使級 外交關係樹立 現況〉〔74年5月現在
△表는 70年代 修交國〕

共 産 圏			
國 名	修 交 日	國 名	修 交 日
蘇 聯 (常)	48.10.12	알바니아 (常)	49. 5.17
蒙 古 (〃)	48.10.15	中 共 (〃)	49.10. 6
폴란드 (〃)	48.10.16	東 独 (〃)	49.11. 7
체코 (〃)	48.10.21	越 南 (〃)	50. 1.31
루마니아 (〃)	48.11. 3	쿠 바 (〃)	60. 8.29
항가리 (〃)	48.11.11	△유고 (〃)	70. 9. 2
불가리아 (〃)	48.11.29		
中 立 國			
國 名	修 交 日	國 名	修 交 日
말 리 (常)	60.10.31	△말 디 브	70. 6.14
기 니 아 (〃)	61. 7.23	△스리랑카 (斷交)	70. 8.24
에 멘 (〃)	63. 3..9	△시에라레온	71.10.14
알제리아 (〃)	63. 5. 1	△말 타	71.12.20
아랍共和國 (〃)	63. 8.24	△카메룬 (常)	72. 3. 3
케냐 (斷交)	64. 2	△부안다	72. 4.22
인도네시아 (常)	64. 4.16	△칠레 (斷交)	72. 6. 1
모리타니아 (〃)	64. 1.11	△우간다 (復交) (常)	72. 8. 2
크메르 (〃)	64.12.20	△세베갈 (常)	72. 9. 8

국명	修交日	국명	修交日
콩고 (브) (常)	64.12.20	△오트볼타	72.10
가나 (断交)	64.12.28	△파키스탄 (常)	72.11.9
탄자니아 (常)	65.1.14	△말라가시	72.11.16
시리아 (〃)	66.7.25	△자이레 (常)	72.12.19
부룬디 (〃)	67.3.11	△다호메 (〃)	73.2.5
소말리아 (〃)	67.4.12	△토고 (〃)	73.2.6
이라크 (〃)	68.1.30	△감비아	73.3.2
南部예멘 (〃)	68.2.7	△모리셔스	73.3.20
적도기니아 (〃)	69.1.30	△스웨덴 (常)	73.4.7
차드 (断交)	69.5.8	△이탄 (〃)	73.4.15
수단 (常)	69.6.21	△아르헨티나 (〃)	73.6.1
中央아프리카 (断交)	69.9.5	△필리핀 (〃)	73.6.1
잠비아 (常)	69.9.22	△노르웨이 (〃)	73.6.22
		△말레이지아 (〃)	73.6.30
		△덴마크 (〃)	73.7.20
		△아이슬란드	73.7.27
		△인도 (常)	73.12.10
		△벵글라데쉬	73.12.16
		△리베리아	73.12.20
		△아프카니스탄	73.12.27
		△가봉	74.1.29
		△리비아	74.1.30
		△코스타리카	74.2.10
		△네팔	74.5.15
		△가이아나	74.5.18
		△라오스	74.5.31

※ (常)은 常駐大使館을 表示
합(45 個國)

△表의 70年代 修交國은 모두
34 個國(断交狀態에 있는 「스리
랑카」, 「칠레」는 除外)

〈表-4〉 〈北韓의 總領事館 및 通商代表部 設置現況〉

(74年5月 現在)

總領事館設置國		通商代表部設置國	
(國名)	(開設日)	(國名)	(開設日)
버마	61.9.	프랑스	67.4.13
싱가포르	69.11.28	레바논	68.2.14
		쿠웨이트	68.3.20
		스위스	69.9.15
		오스트리아	69.12.4
		※ 프랑스는 民間通商事務所임	

〈表-5〉 〈地域別 南北韓外交關係 比較〉

(74年5月現在)

地域	区分 南 北	大使級外交關係		總領事館設置		通商代表部設置		合計	
		南	北	南	北	南	北	南	北
亞州		19(11)	12(8)	3	2	1		23	14
美洲		23(13)	4(2)					23	4
歐洲		19(15)	15(13)				3	19	18
中東		9(5)	8(6)	1		2	2	12	10
阿州		24(13)	24(16)					24	24
計		94(57)	63(45)	4	2	3	5	101	70

※ 大使級 外交關係에 있어서의 ()의 數字는 常駐大使館을 表示함.

2. 經濟外交 現況 (對外貿易現況)

오늘날 北韓은 現實的이고 實利追求的인 立場에서 積極的인 經濟外交를 展開하고 있는데, 이는 「工業基礎의 近代化」를 標榜한 新 6 個年計劃을 効率的으로 遂行하는데 必要的인 資本과 技術導入을 爲해 海外貿易 門戶擴張政策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 表 - 6 > 에서 보듯이 近者에 北韓의 對外貿易이 增加하고 있는 것도 6 個年計劃에 있어 設備近代化나 省力的인 技術의 導入 그리고 自己完決的인 工業의 發展을 爲해 「프랜트」나 機械資材의 對外依存度를 크게 높여게 되었기 때문이다.²⁷⁾

이미 北韓은 67年 12月에 開催된 最高人民會議 第4期 1次會議에서 採択된 所謂 金日成의 「10大政綱」에 나타난 對外貿易에 관한 基本方針에 따라 對外貿易을 推進해 왔다. 同 政綱 8項은 對外貿易의 基本政策으로서 ① 對外貿易을 發展시키는데 있어서 共產圈 市場은 1次的인 對象으로 하며, ② 亞·阿新生獨立國과 完全한 互惠平等의 原則에 立脚한 經濟的 關係 發展에 努力하며, ③ 北韓의 自主權을, 尊重하고 北韓과의 經濟的 連繫를 가지기를 希望하는 社會制度가 相異한 모든 國家와의 貿易 및 通商交流關係를 發展시킨다는 것을 들었다.²⁸⁾

이러한 基本政策에 따라 這間 北韓은 對共產圈交易은 勿論 中立國과 西方國家를 對象으로 하는 多邊的 經濟外交를 展開해 왔다. 그리하여 各種 施設材 및 最新技術導入을 爲해 北韓은 日本과 西歐自由陣營 諸國과의 交易量을 增加시키고 있는 實情이다 (表 - 7 參照). 特히 이러한 北韓의 經濟外交는 6 個年計劃에 있어 年平

均 工業成長率 14%의 目標(表-10 參照) 達成을 위해서는 勿論 6個年計劃을 遂行하는데 따른 基本方針으로 「3大技術革命」을 推進하기 위하여 先進技術과 資本의 導入이 必須條件으로 指摘되고 있다는 面에서 더한층 重要性을 지니고 있다. 實상 71年 金日成의 新年辭를 통해 6個年計劃의 主要指標(表-10 參照)을 2年 앞당겨 達成하겠다고 豪言했던 北韓이 73年 9月 政權樹立 25周年 紀念式에서의 政務院 總理 金一의 報告를 통해 이를 75年末까지 完遂하겠다고 하여 計劃目標을 1年 後退시켰다는 것을²⁹⁾ 보더라도 北韓의 經濟外交의 緊要性의 一端을 엿볼수 있다. 그러므로 近者에 北韓을 對內經濟建設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先進資本主義國家로부터 施設材 및 技術導入에 대한 商談을 積極적으로 推進해왔을 뿐만 아니라 對中·蘇 實利經濟外交의 強化와 東歐圈諸國과의 多邊貿易 促求 그리고 OECD加盟國으로 부터의 借款導入 交渉등을 벌여 왔던 것이다.³⁰⁾ 다음에 北韓의 對外貿易의 推進·陣營別 貿易規模· 貿易依存度·受援現況 그리고 6個年計劃의 主要指標를 보면 <表 6~10>과 같다.

<表-6>(㉔) <北韓의 對外貿易의 推移>

(單位：1,000 U.S.\$)

年 度	輸 出 額	輸 入 額	合 計	前年對比 輸出增加 (%)	前年對比 輸入增加 (%)	前年對比 合計增加 (%)	合計指數 (1961=100)
1961	143,988.0	152,918.5	296,906.5	-	-	-	100
1962	167,245.4	164,804.4	332,049.8	16.2	7.8	11.9	112.1
1963	178,274.7	172,206.3	350,481.0	6.7	4.5	5.6	118.0

年度	輸出額	輸入額	合計	前年対比 輸出増加 (%)	前年対比 輸入増加 (%)	前年対比 合計増加 (%)	合計指数 (1961=100)
1964	194,729.3	189,462.3	384,191.6	9.2	16.0	9.6	129.4
1965	193,709.5	204,447.3	398,156.8	-0.5	7.9	3.6	134.1
1966	207,720.0	206,300.1	414,020.1	7.2	0.9	3.9	139.4
1967	222,743.7	210,981.0	433,724.7	7.2	2.2	4.8	146.0
1968	252,449.5	300,510.8	552,960.3	13.3	42.4	25.2	186.2
1969	299,846.6	385,109.0	684,955.6	18.8	24.8	23.9	230.7
1970	330,161.4	379,774.8	709,936.2	10.1	-1.3	3.6	239.4
1971	396,000.0	462,300.0	859,300.0	18.5	21.7	21.4	289.4
1972	475,200.0	562,400.0	1,037,600.0	20.0	21.7	20.7	349.6

〈参考〉(b) 〈韓国対 对外貿易対 推移〉

(単位：1,000 U.S. \$)

年度	輸出額	輸入額	合計	前年対比 輸出増加 (%)	前年対比 輸入増加 (%)	前年対比 合計増加 (%)	合計指数 (1961=100)
1961	40,901	316,142	375,043	-	-	-	100
1962	56,702	421,782	478,484	38.6	33.4	34.0	134.0
1963	84,368	560,273	644,641	48.7	32.8	34.7	180.5
1964	120,851	404,351	525,202	43.2	-27.2	-18.5	147.1
1965	180,450	463,442	643,892	49.2	14.1	22.6	180.4
1966	255,751	716,441	972,192	41.7	54.6	51.0	272.3
1967	358,592	996,246	1,354,838	40.2	39.1	39.4	379.5

年 度	輸 出 額	輸 入 額	合 計	前年对比 輸出增加 (%)	前年对比 輸入增加 (%)	前年对比 合計增加 (%)	合計指數 (1961=100)
1968	500,408	1,468,166	1,968,574	39.6	51.9	45.3	551.4
1969	702,811	1,823,611	2,526,422	61.6	24.2	28.3	707.6
1970	1,003,808	1,983,973	2,987,781	42.8	10.0	18.3	836.8
1971	1,352,000	2,212,000	3,564,000	33.7	11.5	18.9	998.2
1972	1,682,000	2,428,000	4,110,000	24.4	9.8	15.3	1,151.2

(a·b) 資料：中央日報社 東西問題研究所「北韓經濟」，1973, p.139;

東亞日報社 安保統一問題調查研究所，「安保統一問題基

本資料集」(北韓篇)，1972, p.495；國際問題研究所，

「北韓現況」，1973, p.156 등을 綜合하여 作成한

것임.

〈表-7〉 〈北韓의 陣營別 貿易規模〉

陣 營 區 分	6 1		6 5		7 0	
	額 數	比率(%)	額 數	比率(%)	額 數	比率(%)
共 産 圏	270,057.0	90.9	340,718.3	85.6	581,849.6	82.0
中 立 圏	4,293.1	1.5	2,891.7	0.7	21,313.0	3.0
自 由 圏	22,556.4	7.6	54,546.8	13.7	106,773.6	15.0
合 計	296,906.5	100	398,156.8	100	709,936.2	100

資料：國際問題研究所，「北韓現況」，1973, p.157.

〈表-8〉 〈南北韓의 貿易依存度 比較〉

年 度	韓 国			北 韓		
	G N P (단위:万弗)	貿易規模 (단위:千弗)	貿易依存度 (%)	G N P (단위:万弗)	貿易規模 (단위:千弗)	貿易依存度 (%)
1961	241,100	357,043	14.8	170,430	296,906	17.4
1962	251,100	478,484	19.1	181,579	332,049	12.8
1963	273,000	644,641	23.6	194,940	350,481	17.9
1964	296,200	525,200	17.7	205,058	384,191	18.7
1965	324,600	643,892	19.8	224,510	398,156	17.7
1966	380,400	972,192	25.6	254,130	414,020	16.9
1967	427,100	1,354,838	31.7	256,400	433,724	16.9
1968	501,800	1,968,574	39.2	269,220	552,960	20.5
1969	609,100	2,526,422	41.5	295,200	684,955	23.2
1970	699,300	2,987,781	42.7	300,000	709,936	23.7
1971	802,000	3,564,000	44.4	305,000	859,300	28.1
1972	977,000	4,110,000	42.1	364,000	1,037,600	28.5

資料：中央日報社 東西問題研究所，「北韓經濟」，1973. pp.139~

140；國際問題研究所，「北韓現況」，1973, pp.98, 156 을 綜合하여 作成한 것임.

〈表-9〉 〈北韓의 受援現況〉

(1949~'70 : 單位 萬弗)

國家	區分	無 償	借 款	合 計
蘇 聯		73,125	23,168	96,293
中 共		45,600	15,750	61,350
捷 克		20,034		20,034
東 德		13,635		13,635
波 蘭		9,000		9,000
魯 馬 尼 亞		2,250		2,250
保 加 利 亞		1,250		1,250
匈 加 利		392		392
合 計		165,286 (80.9%)	38,918 (19.1%)	204,204 (100%)

資料：東亞日報社 安保統一問題調查研究所，「安保統一問題基本資料集」(北韓篇)，1972, pp.487-486；國際問題研究所，「北韓現況」，1973, p.168.

〈表-10〉^(a) 〈北韓의 6 個年計劃 目標의 總體的 指標〉 (7 個年計劃의 目標와 実績 포함)

	7 個年計劃目標	7 個年計劃実績	6 個年計劃目標
國 民 所 得	2.7 倍	-	1.8 倍
工 業 總 生 產 額	3.2 倍	3.3 倍	2.2 倍
工 業 年 平 均 成 長 率	당초 18% 延長 12.4%	12.8 %	14 %

	7 個年計劃目標	7 個年計劃実績	6 個年計劃目標
生産手段生産	4.2 倍	3.7 倍	2.3 倍
消費財生産	3.1 倍	2.8 倍	2.0 倍

資料：ユリア評論，1971，玉城素，“重大転機に立つ北朝鮮” p.14

(中央日報社 東亜問題研究所，「北韓經濟」，1973，p.61에서
再引用)

〈参考〉^(b) 76年度 南北韓의 總量指標比較

	单 位	韓 国	北 韓
G.N.P.	百万弗	16,500	※ 5,400
1人当 GNP	弗	482	※ 334
經濟成長率	(年) %	8.7	※ 10.3
工業成長率	(年) %	15.7	※ 14
農業成長率	(年) %	4.4	※ 3.4

(※表는 推定임)

資料：國際問題研究所，「北韓現況」，1973，p.97.

3. 軍事外交現況 (軍事條約現況)

北韓의 軍事外交는 한마디로 对中·蘇 安保外交에 重点을 두어
왔다. 그것은 北韓의 安保가 蘇聯 및 中共과의 軍事同盟條約에
依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北韓은 所謂 「南朝鮮革命」遂行에

있어 國際的 支援體系를 主要條件의 하나로 들고 있는 바, 中共 및 蘇聯을 그 支援體系의 中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北韓은 61年 韓國에서 5.16 軍事革命이 일어나 反共政策이 強化되자 自體의 安保體制를 再定立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判斷한 나머지 韓·美防衛條約에 對應하기 위한 對蘇 및 對中共軍事條約을 締結하였다. 즉 同年 7月 6日에 蘇聯과 所謂 「朝·蘇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條約」을 締結하고, 그 직후인 7月 11日에는 中共과도 똑같은 軍事條約을 締結하였다.³¹⁾ 이들 條約에서는 戰爭이 發生했을 경우 「遲滯없이 온갖 手段으로써」(朝·蘇條約 1條), 「遲滯없이 모든 힘을 다하여」(朝·中條約 2條) 軍事的 및 其他 援助를 提供한다는 內容으로 되어 있다.³²⁾ 有効期間에 대해서는 朝·蘇條約은 10年의 効力を 갖는 것으로 締約 一方이 期間滿了 1年前에 이 條約을 廢棄하는데 관한 希望을 表示하지 않는 한 다음 5年間 계속하여 効力を 가지며, 이런 前次에 의해 앞으로 有効期間이 延長된다고 하였고(6條), 朝·中條約은 條約을 修正 또는 廢棄하는데 관한 雙方間의 合意가 없는 以上 계속 効力を 갖는다고 하여(7條) 半永久的인 性格을 띄고 있다.³³⁾ 이들 軍事條約의 意義에 대해 北韓은 『帝國主義者들이 社會主義 戰取物을 侵害하려고 한다면 羞恥스러운 慘敗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斷乎히 警告하는데 있으며 두나라 人民들의 平和的 努力을 믿음직하게 保衛하는데 있다』고 하였다.³⁴⁾

이와같이 北韓의 軍事外交는 ① 自體의 防衛體制를 確立하고, ② 나아가 共產陣營 一環 내지 陣地로서의 使命을 다하며, ③ 韓

半島 全域을 共產化해야 한다는 所謂 「兩朝鮮革命」의 追求를 그 目標로 하면서³⁵⁾ 對蘇 및 對中共外交에 置重하여 展開돼 왔다. 特히 69年 韓國의 安保는 日本의 安保에 緊要하다고 한 「닉슨 - 佐藤」共同聲明³⁶⁾이 發表되자 安保에 不安을 느낀 北韓은 이에 對處하기 위한 對中·蘇共同紐帶를 다져 北方三角關係를 強化하는데 腐心하였다. 그리하여 70年 4月 蘇聯軍 總參謀長 「자하로프」와 中共首相 周恩來가 北韓을 訪問하여 對北韓支援을 다짐하기도 하였다.³⁷⁾

71년에는 軍事條約締結 10周年에 즈음하여 北韓을 訪問한 蘇聯 第1 副首相 「마즈로프」를 團長으로 하는 代表團을 맞아 北韓은 朝·蘇條約 5年間 自動延長을 祝賀하는 大々的인 紀念行事を 가졌 으며, 中共과도 高位代表團이 相互訪問하는 등 紀念行事を 가졌다. 特히 中共과는 同年 9月 6日 「對北韓無償軍事援助協定」을 締結하 기도 하였다.³⁸⁾ 이와같이 北韓은 그동안 對中·蘇軍事條約 締結 紀念行사와 그以後의 軍事外交를 통해 蘇聯과 中共 雙方으로부터 軍事同盟에 의한 自體의 安保를 再確認하고 이른바 血盟關係를 다 저놓는데 注力해 왔다. 北韓은 所謂 「自主路線」에 立脚하여 「國防에서의 自衛」를 一面으로 標榜하면서 他面으로 背後支援勢力 으로서 中共과 蘇聯의 支援確約을 계속 다짐받아 왔다. 다음에 英國戰略問題研究所의 資料에 依拠한 北韓의 軍事力을 보면 <表- 11 >과 같다.³⁹⁾

〈表-11〉 〈南北韓の 軍事力比較〉(73年)

	韓 国	北 韓
人 口	3,266,500 名	15,000,000 名
兵 力	633,500 名	470,000 名
服 務 期 間	陸軍・海兵隊 2年9個月 海・空軍 3年	陸軍 3年 海・空軍 4年
G N P	93 億弗(72年推定)	35 億弗(72~73年推定)
國 防 費	1,848 億圓(73年) (476 百万弗: 400 圓 = 1 弗) 72年7月, 388 圓 = 1 弗73.7)	1,282 百万圓(73年) (620 百万弗: 2.05 圓 = 1 弗)
陸 軍	560,000 名	408,000 名
海 軍	18,900 名	17,000 名
	海兵隊 29,600 名	
空 軍	25,000 名	45,000 名
豫 備 兵 力	郷土豫備軍 2,000,000 名	安全兵力 50,000 名 勞農赤衛隊 1,450,000 名

資料: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73~1974," London, pp.53~54.

六. 各陣營別外交

1. 對共產國外交

(1) 對共產國政策

北韓이 對共產國外交의 基本政策은, 『平等과 自主性에 依拠하여 團結, 協力하며 國際的 連帶性을 強化하는 것은 兄弟國과의 關係에서 우리 黨이 一貫되게 堅持하고 있는 確固不動한 原則』이며,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原則的 立場을 지키며 自主性을 尊重하여』⁴⁰⁾ 社會主義國家와의 統一과 國際共產主義運動의 團結, 強化를 圖謀한다』

는 말로서 잘 表現되고 있다. 61年 9月에 열린 勞動黨 第4次 大會에서 金日成은 『社會主義陣營의 統一과 이 陣營國家들간의 親善과 協力關係의 發展은 各已 民族의 獨立을 鞏固히 하고 이를 國

家들에 있어서 社會主義建設을 容易하게 하는 重要한 要因이며, 朝鮮人民은 今後에도 社會主義陣營의 成功과 그 不敗의 統一을 強化하며 蘇聯을 비롯한 모든 社會主義國家 人民들과의 親善, 協力關係

를 發展시키기 위하여 全力을 다할 것이다』라고 演說하여 共產主義國과의 團結強化를 다짐하였다.

그런데 中·蘇紛糾가 激化되고 있던 63年 6月 北韓 最高人民

會議 常任委 議長 崔庸健(現 國家副主席)이 中共을 訪問하였을때, 中共의 國家主席 劉少奇와의 사이에 發表된 共同聲明에서는 『社會主義國家의 對外政策을 一面의으로 平和共存에만 歸結시키고 平和的

共存을 意識形態의 鬭爭과 經濟的 鬭爭으로만 解釋하여서는 絕對로 안되며, 帝國主義의 侵略政策과 戰爭政策에 對한 各方으로 되는

堅決한 鬪爭을 進行하지 않고서는 平和共存에 대하여 말할 수 없
 다는 것을 忘却해서는 안된다』⁴²⁾ 고 하였다. 그후후 66年 8月에 自
 「自主路線」을 宣稱한 北韓은 同年 10月에 勞動黨 代表者會議를
 開催하였는데, 同會議에서 金日成은 「現情勢와 우리 黨의 課業」
 이라는 報告를 통하여 『우리 黨의 모든 成果는 自主路線과 結付
 되어 있다』고 強調하면서 「國際情勢와 國際共產主義運動에서 提起
 되는 몇가지 問題」에 대해 言及하였다. 즉 『國際問題에서는 原則
 을 버리고 美帝와 妥協하는 일은 絶對로 許容치 말아야 한다.
 社會主義나라들이 帝國主義나라들과 外交關係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여기에 反帝鬪爭을 隔化시키거나 이것으로 하여 反帝鬪爭을 弱化시
 켜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하여 蘇聯의 修正主義에 一釘을 加하고,
 이어 『이와함께 美帝를 反對한다고 큰 소리만치고 美帝의 侵略을
 沮止시키기 위한 具體的 行動을 取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다』고 하
 여 中共의 教條主義에도 一釘을 놓았다.⁴³⁾ 이어 金日成은 『國際共
 產主義의 原則問題는 反帝共同行動과 反帝統一戰線을 이룩하는 것』
 이라고 力說하였다.⁴⁴⁾ 그리고 68年 10月 勞動黨 創建 20周年 紀
 念報告에서도 金日成은 『마르크스-레닌主義와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原
 則에 의한 完全한 平等權과 自主性에 依拠하여 社會主義諸國과의
 團結을 強化하자』고 喝破하였다.⁴⁵⁾

한편 70年 11月 勞動黨 第5次大會에서의 對外政策에 관한 報告
 演說에서 金日成은 『美帝의 侵略을 破綻시키기 위해서는 世界到處에
 서 反美鬪爭을 積極的으로 廣範하게 展開해야 한다』고 主唱하면서
 特히 中共과의 政治. 經濟. 軍事的 協力을 더욱 強化해야 한다고

하였다.⁴⁶⁾ 또한 73年 9月 政權樹立 25周年 紀念式에서 政務院 總理 金一은 紀念報告중 對外政策部門에서 ① 反帝·反美鬭爭을 위한 共同戰線強化 및 日本軍團主義에 대한 反對鬭爭強化 ② 「마르크스-레닌」主義와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旗幟下에 反帝·反美鬭爭強化 ③ 社會主義人民과의 團結, 國際勞動階級과의 團結, 三大陸 人民과의 團結을 強調하였다.⁴⁷⁾

(2) 对中·蘇 및 東歐圈關係

初期에 對蘇一辺倒 外交政策을 取하고 있던 北韓은 55年 4月 이룬바 「반동會議」를 契機로 對蘇一辺倒政策을 止揚하고 中立國과 連繫를 맺는 多辺外交로 換換함과 同時에 56年 2月 蘇聯의 第20次 共産黨大會 以後 Stalin 格下運動과 平和共存路線에 反對해 오다가 60年代初 中·蘇 紛糾가 激化되자 62年부터는 對中共接近 外交路線을 扞함으로써 對蘇關係가 惡化되었다. 그로 인해 經濟 및 軍事援助가 中斷됨으로써 7個年計劃에 蹉跌이 생기게 된 北韓은 다시 對蘇關係改善의 名分을 찾기 위해 66年 8月 「自主路線」을 宣言하였다.⁴⁸⁾ 그리하여 蘇聯을 修正主義, 中共을 冒險主義·教條主義라고 同時에 非難하면서 對蘇關係改善을 試圖하였다. 그 후 蘇聯으로부터 經濟·軍事援助가 再開되고 對蘇關係가 好伝되는⁴⁹⁾ 反面 中共과는 文化革命期間 關係가 疎遠해졌다. 그러나 文化革命이 끝난 69年 以後 漸次 對中共關係는 改善되어 及其也 血盟關係의 復活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⁵⁰⁾ 그럼으로써 北韓은 中共과 蘇聯사이에서 中立을 意味하는 自主路線에 立脚한 對外姿容을 取하면서 이룬바 양다리 政策을 쓰게되었다.⁵¹⁾

이러한 양다리 政策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지만, 70年代의 外交

性向을 보면 北韓은 中·蘇理念紛爭을 度外視하고라도 親中共路線을 걷고 있다고 할수 있다. 따지고 보면 金日成은 모든 問題에 있어서 主体性を 強調하고 있으나 最近의 外交政策樹立에는 中共에 힘입은 바가 적지 않으며, 앞으로 外交및 經濟的·軍事的 脈絡에서도 中共에의 依存度는 深化될 것으로 보인다.⁵²⁾ 端的으로 北韓의 外交政策은 強力한 中共의 「外部指向的」(turning outward) 政策 影響下에 계속될 展望이고 보면,⁵³⁾ 北韓이 親中共路線에서 逸脫하려 않으리라는 豫想은 十分 理解가 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對蘇關係의 弱화나 또는 惡化를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北韓이 親中共路線을 걷는다 할지라도 對蘇關係를 同時的으로 維持, 發展시켜 나갈 것이다.⁵⁴⁾ 더우기 北韓은 ① Lenin-Stalin 主義에 가장 執念이 強한 政權이라는 點 ② 中·蘇를 다같이 이 韓國을 共產化하는데 不可欠의 背景내지 支援勢力으로 보고 있다는 點 ③ 自體의 防衛를 위해서는 中·蘇와의 同盟 내지 集團 防衛體制를 同時에 強化할 必要性이 있다는 點 ④ 全般的 對外政策의 要求로 부터 蘇聯및 中共과의 關係를 同時에 發展시키는 것이 必要하다는 點 ⑤ 現在의 權力安定을 保障키 위해서도 中·蘇 어느 一方과의 關係가 惡化되어서는 안된다는 點 ⑥ 經濟計劃을 成攻的으로 完遂하기 위해서도 中·蘇의 援助가 다같이 必要하다는 點 등에 立脚하여 將次도 對中·蘇政策에 있어 同時的 同盟關係 維持에 尽力할 것이라 함은 充分히 窺知할 수가 있다.

이와 함께 北韓의 對東歐關係 역시 계속 增進되리라 본다. 特히 70年代에 와서 韓國이 對東歐經濟外交를 試圖하는데 刺戟

받아 北韓은 이의 沮止를 위해서도 對東歐圈外交를 적극 展開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現在 進行중인 3個年計劃을 遂行함에 있어서 必須不可欠한 交易增大를 위해서도 對東歐圈外交는 強化될 것이다. 北韓은 그동안 東歐圈中 唯一한 未修交國이었던 「유고」와도 71年 9月 大使級 外交關係를 樹立한 바 있다.⁵⁵⁾

2. 對中立圈 外交

(1) 對中立圈政策

北韓이 對外政策의 基本路綫중 主要한 하나의 側面은 亞·阿 中南美諸國과 親善및 協調關係를 增進하는 것이라함은 前述한 바와 같다. 이는 Scalapino教授가 指摘하듯이 非西方의 新興 第3世界인 亞·阿·中南美의 情勢를 利用하고 帝國主義 特히 美國을 弱화시켜 드디어는 崩壞시킴으로써 世界革命을 前進시키려는데 그 目標가 있는 것이다.⁵⁶⁾ 이러한 路綫은 55年 4月 亞·阿非同盟 29個國이 參加한 所謂 「반동會議」에서 「平和5原則」⁵⁷⁾을 發表된 것을 契機로 하여 北韓이 이것을 支持함으로써 나타난 것이다. 즉 56年 4月 勞動黨 第3次大會에서 金日成은 報告演說을 통해 『반동會議는 植民主義를 反對하며 鞏固한 平和를 指向하는 數億萬 亞·阿人民들의 一致한 念願을 表明하였으며, 有名한 「平和5原則」에 立脚한 이 地域人民들의 團結을 뚜렷이 보여 주었고 帝國主義者들에게 커다란 打擊을 주었다.』⁵⁸⁾고 말하고 『相異한 社會制度를 가진 나라들의 平和的 共存에 대한 「레닌」의 原則을 堅持하

여 우리와 좋은 關係를 維持하려는 모든 나라들과 友邦的 連繫를 設定하기 위하여 努力할 것이다.』⁵⁹⁾라고 附言하여 最初로 對中立 國政策을 闡明하였다.

그 후 61年 9月 勞動黨 第4次大會에서 金日成은 『우리黨과 政府는 社會制度가 相異한 國家들간의 平和共存의 原則에 立脚하여 亞·阿·中南美의 民族的 獨立國과 友好關係를 맺고 發展시키는 것을 對外政策의 重要한 一環으로 삼고 있다』⁶⁰⁾고 하여 對中立國政策을 再次 闡明하였다. 同 大會에서 金日成은 國際關係에 있어서 「國內外 情勢는 우리 革命에 有利하게 進展되고 있다」는 希望的 情勢判斷을 하면서 ① 共產諸國과는 團結強化, ② 中立諸國과는 親善強化, ③ 帝國主義國家와는 鬭爭強化를 強調하고, 이러한 政策만이 勝利를 保障할 것이라고 하였다.⁶¹⁾ 그리하여 이때부터 北韓의 外交가 國際的 性格을 띠기 始作했던 것이다. 如斯한 北韓의 對中立國政策은 66年 10月 勞動黨 代表者會議에서도 거듭 闡明되었다.⁶²⁾

이 當時 北韓은 強大國에 對해서는 修正主義를 限死코 反對하는 理念主義 外交原則을 適用했고, 亞·阿·中南美諸國에 對해서는 이른바 反帝·反植民 民族解放을 標榜하면서 對中立國⁶³⁾ 努力을 前例없이 傾注하였다. 70年代에 들어서서는 多邊外交의 積極化와 함께 對中立國 外交關係를 大的으로 擴大, 發展시켜 왔다. 앞에서의 外交現況에서 보듯이 70年代에 와서 이룩한 對中立國 外交活動의 成果는 참으로 多大한 것이다.⁶³⁾

다음에 北韓의 對中立國 外交戰略을 보면, ① 中立諸國과의 外交關係를 擴大함으로써 北韓의 國際的 地位를 向上시키며, ② 反帝

反植民主義 鬭爭을 통한 連帶性強化로 韓半島 共產化統一의 障礙要素인 美國의 影響力을 後退시키고 나아가서는 美國을 亞·阿地域에서 獨立시키며, ③ 中立諸國과 經濟·文化關係를 擴大, 發展시키므로써 同諸國內의 共產勢力 養成을 뒷받침하며, ④ 北韓의 統一案에 대한 広範한 支持를 獲得함과 同時에 UN에서의 支持勢力을 確保하려는 것등을 들수 있다. 그리고 對中立國 浸透戰術로서는 ① 平和共存 標榜 ② 反帝·反植民主義 標榜 ③ 國際共產主義戰線 組織을 통한 浸透 ④ 人民外交方式에 의한 招請과 訪問을 통한 接近 ⑤ 經濟및 文化交流을 통한 浸透 ⑥ 親善協會와 같은 團體를 통한 浸透 ⑦ 中立國에 影響力이 큰 國家를 통한 接近 ⑧ 中共勢를 便乘한 浸透등 매우 多樣하다.⁶⁴⁾ 이러한 浸透戰術은 그 浸透過程에 있어 時期마다 情勢變動과 對象國의 對內外政策에 따라 隨時로 變更된다.

(2) 對亞·阿·中南美關係

70年代에 와서 北韓은 對亞·阿·中南美外交에 拍車를 加하여 앞에서 본 外交關係樹立現況(表-3)에 나타난 것처럼 74年 5月 現在 亞洲에서 10個國(「스리랑카」包含), 阿洲에서 15個國, 南美에서 4個國(「칠레」包含)都合 29個國과 大使級 外交關係를 樹立하였다. 이 가운데 「스리랑카」에서는 北韓 大使館員이 追放당함으로써 斷交狀態에 있고, 「칠레」와는 「칠레」의 「아엔테」在翼政權을 顛覆시킨 軍事革命政權에 의해 外交關係가 斷絶되었다.

위의 修交國數가 뜻하는 바와 같이 特히 北韓의 對阿外交는 엄청난 收穫을 보여주고 있는데, 事實上 Africa 新生國들은 우선 같은 植民地 國家였고 被壓迫 民族이었다는데서 緣由하는 弱小國간의

共同戰線이 어느 程度 必要할 뿐만 아니라 新植民 帝國主義에 대한 反挽感이 크게 作用함으로써 北韓의 對阿外交는 刮目할 進展을 보 고 있는 셈이다. 또한 北韓은 Latin America 諸국이 民族主義 내지 經濟的 自覺에 눈을 뜨고 美國의 影響下에서 漸次 脫皮하러 는 努力이, 增大되자 이를 奇貨로 接近을 적극 試圖하고 있다.

그동안 北韓이 注力해온 對中立國外交의 效果面에서 特記할 것은 73年 9月 Africa의 「알제이」(「알제리」首都)에서 열린 非同盟會議에서 採択한 韓國問題決議案인데, Africa 36個國, Arab 16個國, Asia 15個國, Latin America 6個國과 「유고」 「키프러스」, 「말타」등 76個國이 參加한 이 非同盟國 頂上會議에서 採択한 韓國問題決議案은, 『韓半島의 再統一이 平和的으로 實現될 수 있도록 外國의 干涉中止와 自決權을 要求한다』면서 韓國에서의 外軍撤収와 UN에서의 韓國問題 檢討및 UNCURK의 解体를 主張하였을 뿐만 아니라 南北韓은 再統一 후에나 또는 南北聯邦國家라는 單一國家로서 UN에 加入될 수 있다고 하여 北韓의 立場을 同調, 支持했던 것이다.⁶⁵⁾실상 이들 非同盟國이 오늘날 第3勢力으로서 차지하는 比重은 어떤나라도 主視할 수 없는 狀況이고 보면, 北韓으로서는 韓半島 共產化統一遂行을 위한 支援勢力으로 利用함은 勿論 UN에서의 北韓 支持勢力 確保를 위해서도 非同盟 中立國外交의 重要性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도 北韓의 對亞·阿·中南美 外交攻勢는 계속 加熱化될 것이다.

3. 对西方圈外交

(1) 对西方圈政策

이미 北韓은 『資本主義 国内의 左翼勢力의 反帝·反美鬭争을 支持하며 人民 对 人民간의 交流를 活潑히 하는 反面, 그들이 自主的 立場을 理解하는 國家와 經濟交流를 疎하고 있고, 現在는 資本主義國家와도 外交關係를 摸索하고 있다.』⁶⁶⁾고 하여 对西方圈 政策을 밝힌 바 있다. 近者에 北韓은 『南北韓 雙方에 均等한 政策을 實施하는 資本主義國家와도 平和共存의 原則에 立脚하여 關係를 맺겠다』고 하여 对西方 門戶開放政策을 表明하였다.⁶⁷⁾

本來 北韓의 对西方政策은, 美國을 除外한 西方諸國에 대해서는 西方陣營의 政治·經濟 및 軍事面의 对立的 要素를 重視하고 美國의 世界政策을 牽制하는데 있어서 提携할 可能性이 있는 「第二中間地帶」로 보고 同 諸國과의 關係改善을 期하는 것이다.⁶⁸⁾ 이러한 政策은 한편으로 西方諸國으로부터 先進技術과 資本財導入의 要求와도 關聯돼 있음으로 最近에는 美國을 除外한 모든 西方諸國과 交易 및 商去來를 하고 있는 實情이다.

現實적으로 北韓은 日本을 包含한 西方諸國과의 政治關係를 맺는 일은 거의 不可能하다는 條件에서 通商 및 文化關係의 開拓과 增進에 努力을 集注하고 있으며 이러한 經濟·文化關係의 密接化를 土臺로 삼아 將次의 政治關係 設定을 노리고 있다. 이같은 北韓의 对西方圈外交는 資本主義國家 相互間의 矛盾·对立關係를 利用함으로써 韓國을 弱体化하고 北韓을 強化하는데 그 目的이 있음은 勿論

이다.

北韓의 對西方外交에 動員되는 戰術은 所謂 人民外交戰術인데, 對西方接近方式은 먼저 非公式「루트」를 통해서 該當國의 著名한 人士를 個別 招請하거나 訪問하는 人民外交段階로 부터 始作하여 民間使節團을 招請하거나 相對國에 派遣하고, 다음에 政府使節團을 招請 또는 派遣하여 우선 通商代表部나 公報館을 設置하며 나아가서는 그의 地位를 昇格시켜 大使級 外交關係로 發展시키는 方法을 取하는 것이 通例이다. 그 좋은 例가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의 경우이다. 이러한 北韓의 對西方外交는 既述한 바와 같이 71年 11月 勞動黨 第5期3次 全員會議에서 決定한 對外政策의 戰術的 轉換에 따라 國際的 環境變化에 適應하는 對外政策을 驅使함으로써 더욱 具體的 樣相을 더면서 展開되 왔다.

(2) 對日關係

우선 北韓의 對日接近 試圖의 政治的 및 經濟的 背景을 보면, ① 相對的으로 韓國에 心理的 動搖를 惹起시키며, ② 對日 關係改善을 통해 韓·日關係와 對等한 日·北韓關係를 誘導함으로써 北韓의 國際的 地位를 向上시킴과 同時에 韓·日關係에 龜裂을 誘發키며, ③ 美·日關係의 密接한 結束을 瓦解시키고 日本의 再軍備를 沮止시키며, ④ 對日國交正常化를 이룩함으로써 韓國이 韓半島의 唯一 合法政府임을 規定한 韓·日條約의 自動廢棄를 副策하며, ⑤ 統一政策 遂行에 있어 적어도 日本이 不干涉의인 中立을 지킬수 있도록 日本 國內의 輿論을 造成하며, ⑥ 6個年經濟計劃을

뒷받침하기 위해 日本과의 經濟交流와 日本의 技術 및 資本 導入을 적극 推進해야 한다는 點 등이 指摘될 수 있다. 69)

北韓의 對日接近 戰術은 民間「베이스」를 통한 經濟·文化·스포츠 人事交流등을 擴大·發展하는 것이며, 特히 朝總聯 組織을 통해 日本의 各 団体들과 連帶를 強化함으로써 日本內에 親北韓勢力을 擴張하고 그 勢力을 利用하여 對北韓政策을 伝換하게끔 日本政府에 壓力을 加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北韓은 日本의 左翼団体들과 連帶를 強化할 뿐만아니라 「日·朝協會」, 「日·朝貿易會」, 「日·朝友好保進議員聯盟」등과 같은 親北韓団体들로 하여금 北韓의 對日接近에 적극 協調토록 하고 있다. 70)

現在 日本과 北韓간의 接近內容은 經濟·文化·스포츠·人事交流등으로 広範하게 多元化돼 있다. 經濟面에서 最近에 日本政府는 처음으로 對北韓 「포렌트」輸出에 日本輸出入銀行資金 使用을 正式 認可까지 한 바 있다. 71)

近者에 北韓은 『門戶는 항상 열려있으므로 問題는 日本政府의 態度에 달려 있다』면서 ① 日本國民에게 過去의 補償을 要求하지 않으며, ② 韓·日間的 國交는 容觀的 事實로 認定하고, 이것이 日·北韓 關係正常化에 妨礙가 되지 않는다는 柔軟한 姿勢로 日·北韓 關係正常化를 促求하였다. 72) 이같은 北韓의 態度에 대한 日本政府의 公式的인 立場은, ① 北韓의 對日姿勢가 柔軟해진 것으로 볼수 있으나, ② 韓·日友好關係 維持는 外交의 基本方針이므로 지금 狀態에서 北韓과의 關係正常化는 생각할수 없으며, ③ 當分間 非政治的인 經濟·文化·스포츠·科學·人事交流등을 擴大해 나간다는 方針을

取하고 있다. 73) 다음에 參考로 北韓의 對日貿易 推移를 보면
 <表-12>와 같다.

<表-12> <南北韓의 對日貿易 推移> (單位: 1,000 \$)

年度	韓國			北 韓		
	輸 出	輸 入	合 計	輸 出	輸 入	合 計
1961	22,445	125,876	148,321	3,976	4,938	8,914
1962	28,504	138,140	166,644	4,553	4,781	9,334
1963	26,980	159,661	186,641	9,430	5,347	14,777
1964	41,667	108,841	150,508	20,231	11,284	31,515
1965	41,315	180,304	221,619	14,723	16,505	31,228
1966	71,688	335,170	406,858	22,692	5,016	27,708
1967	92,382	406,959	499,341	29,606	6,370	35,976
1968	101,630	602,653	704,283	34,032	20,748	54,780
1969	133,927	767,191	901,118	32,186	24,159	56,345
1970	228,970	818,175	1,047,145	34,414	23,344	57,758
1971	274,421	855,687	1,130,108	30,059	28,907	58,966
1972	407,876	1,031,085	1,438,961	38,311	93,433	131,754
1973	1,241,539	1,726,900	2,968,439	68,140	93,960	162,100

資料; 韓國貿易協會, 「北韓의 貿易」, 1972.9.25 ; 極東問題研究所
 「國際問題」, 1973.3月, P. 47 ; 韓國反共聯盟, 「自由公論」
 1973.7月 P. 60 을 綜合하여 作成한 것임.

(3) 对美關係

北韓은 对外政策의 戰術的 伝換을 決定한 次後 戰後 처음으로 美国 言論人과 學者의 北韓 訪問을 許諾하는 등 对美關係에 있어서도 柔軟姿勢를 取하는 一連의 徵非를 보여왔다.⁷⁴⁾ 「反美」政策을 对外政策의 主原則으로 삼아온 北韓이 갑자기 对美關係에 있어 柔軟姿勢를 取하게 된 重要한 理由는 바로 美·中共의 和解를 中心으로 한 國際情勢 變化의 渦中에서 緊張緩和의 國際潮流에 迎合하여 國際的 獨立을 免하려는데 있다.

이와같은 北韓의 对美關係改善 試圖의 背景에는 ① 对外姿勢에 있어 어느 程度 伸縮性을 誇示하여 從來의 好戰的인 「이미지」를 扞拭함으로써 平和愛好的 「이미지」를 自由世界에 扶植하고, ② 現實 肯定의 方向으로 政策을 修正함으로써 共產化統一 實現에 있어 段階 發展시키며, ③ 内外에 平和政勢를 展開함으로써 韓國의 立場을 獨立시키고 나아가 韓半島에서의 緊張原因은 韓國에 있다는 식으로 緊張에 대한 責任轉嫁를 하며, ④ 從來의 对美態度를 緩和하여 美国에 대한 戰術을 積極化함으로써 美国의 对韓國 背後支援을 弱화시키려는 底意가 있다고 할 수 있다.⁷⁵⁾

한편 美國의 「로저스」前國務長官은 72年 3月 7日 『北韓을 包含한 모든 나라와 關係를 改善하려는 것』이 現 美国政府의 基本 方針이라고 밝히 最初로 美国의 对北韓關係改善의 示唆을 던진 며칠 후인 同 15日 美合參議長 「토마스·무어러」提督은 下院外交委에서의 証言을 통해 『앞으로 數年内 中共 및 北韓과의 關係를 현저히 好伝시키는 것이 우리의 確固한 希望』이라고 言明하였다.⁷⁶⁾

또 同年 6月 27日 역시 「로저스」 前國務長官은 「칸베라」에서 열린 第17次 SEATO 理事會의 演說에서 처음으로 北韓을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CDRK: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란 公式 이름으로 呼稱하여 美國의 對北韓關係改善의 機微를 더욱 짚게 하였다.⁷⁷⁾ 그런데 美國의 立場에서는 對北韓 關係改善 措置를 取해도 無妨한 條件으로 ① 旅行制限 対象圈인 「큐바」와 北韓중 北韓은 美·中共緊張緩和에 影響을 가장 크게 받았고, ② 南北韓간에는 對話가 이루어져 이미 接觸을 始作함으로써 前보다 緊張은 緩和되고 있으며, ③ Nixon Doctrine 에 따라 駐韓美軍 撤収는 언젠가 實現될 것이라는 點들이 指摘될 수 있다.⁷⁸⁾

이렇게 보면 J. Cohen 教授가 北韓訪問記에서 말했듯이 어느 國家와도 어떤 形態의 接觸을 가지려는 努力이 엿보였다고⁷⁹⁾한 北韓이 駐韓美軍 撤収 前이라도 對美國關係改善을 할수 있다고 한 立場에서 보면, 그리고 「對決에서 協商으로」라는 旗幟를 내세우면서 北韓을 包含한 모든 國家들과의 關係改善을 外交原則으로 삼고 있는 美國의 立場에서⁸⁰⁾ 보면 美國과 北韓간의 關係改善도 徐徐히나마 起伏을 이루면서 進展해 나갈 것으로 豫見된다.

(4) 對西歐 및 其他關係

별써 60年代 後半期에 「스위스」, 「오스트리아」에 通商代表部를, 仏蘭西에 民間通商事務所를 設置한 北韓은 70年代에 와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에 各各 公報館을 開設하는등 對西歐國浸透外交에 腐心하였다. 特히 北歐諸國에 對한 集中外交攻勢

는 奏效하여 73年 3月末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등 北政 5個国 外相會議에서 南北韓 同時承認과 修交擴大에 관한 原則에 合意한 후 이들 5個国은 若干의 時差를 두면서 모두 北韓을 承認함과 同時에 大使級 外交關係를 樹立하였다. 이처럼 北韓의 對北政外交의 收穫은 실로 큰 것이며, 이의 余波는 余他 親韓西歐國家들에게도 影響을 미치게 하고 있음은 勿論이다.

그밖에도 北韓은 仏蘭西, 英國, 伊太利 등 西歐諸國에 民間「베이스」의 經濟交流를 推進해왔을 뿐만아니라 「万壽台」藝術團을 72年에 仏蘭西와 「스위스」에, 73년에는 英國과 伊太利에 派遣하여 公演을 갖도록 하는등 親善紐帶 強化에 努力하였다. 伊太利가 73年 4月 「아비잔」에서 열린 IPU 總會에 北韓의 加入案을 支持하였고 仏蘭西가 同年 5月 北韓의 WHO 加入을 역시 支援한 것도 北韓의 이러한 對西歐外交의 結實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 그리고 北韓은 72年 7月 西獨에 대하여 非公式이긴 하지만 修交希望을 表示하는 등 政治關係 改善을 嚮嚮한 바도 있다.⁸¹⁾ 한편 勞動黨이 執權하고 있는 溟洲는 中共·越盟을 承認한 후 對北韓 關係改善에도 神經을 써왔는데, 73年 9月 「케언즈」貿易相이 溟洲關係로서는 처음으로 北韓을 訪問하여 北韓과 貿易擴大 및 人的 交流 增大問題에 關係 協議하기도 하였다.⁸²⁾

이와같이 北韓의 對西方國 外交活動은 西方諸國의 現實主義的 態度와 이들 國家들이 分斷國에 대한 同時修交에 好意的 反應을 보이고 있는 趨勢에 迎合하여 큰 進展을 보고 있다. 앞으로 北韓은

- ① 西歐諸國의 對外政策을 擴大, 發展시켜 北韓 承認을 保求하고,
- ② 西歐諸國의 影響을 많이 받고 있는 Africa 諸國에 대한 浸透을 容易케 하며,
- ③ 6 個年計劃 遂行을 위한 西歐의 先進 技術 및 施設導入을 促進하기 위하여 계속 對西歐圈 接近을 試圖할 것임은 勿論 나아가 西歐諸國과의 政治關係改善에도 拍車를 加할 것이다.

七 . 對 UN 外 交

1 . 對 UN 政 策

그동안 北韓은 韓國問題를 UN에서 分離시키는 것을 傳統的인 對 UN 政策으로 삼아왔다. 즉 韓國問題는 UN憲章 2條7項과⁸³⁾ 107條에⁸⁴⁾ 依拠하여 民族内部 問題이며 戰後處理問題라고 主張하면서 UN의 對韓國問題 干渉를 排擊해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北韓은 ① UN의 韓國問題에 대한 非合法的인 諸決議 無効化 ② 駐韓 UN軍撤収 ③ UNCURK解体 ④ UN의 韓半島問題에 관한 內政干渉 排除등을 要求함으로써 對 UN 政策을 具體化해 왔다. 勿論 이러한 北韓의 對 UN 政策은 해마다 共產諸國과 一部 非同盟 中立國의 共同決議案으로서 代弁되 왔다.

따라서 這間 UN總會에서 韓國問題가 拳論되는 경우 北韓이 無條件 參席하겠다는 主張도 실은 韓國統一問題를 UN에서 論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위의 北韓의 要求들을 貫徹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金日成은 『UN에 있어 韓半島와 關聯하여 여러가지 未解決問題가 있으므로 일단 上程되면 北韓代表가 「領土의 權利」를 가지고 發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⁸⁵⁾ 強調해 왔다.

이와 關聯하여 南北韓 同時 UN加入問題에 있어서 北韓은 分明히 反對하는 立場을 取하고 있다. 73年6月23日 北韓은, 韓國의 「6.23平和統一 外交宣言」에 대하여 即刻적으로 猛駁하면서 南北韓 同時加入을 反對하였다. 즉 金日成은 所謂 「平和統一 5大綱

領」(後述)이란 것을 내세워 韓國의 南北韓 同時 UN加入 및 同時 UN招請 不反對 宣言(6.23宣言 5項)에 대하여 『우리는 UN에 南北이 各各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主張하며, 나라의 統一이 이루어지기 前에 UN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南北聯邦制라도 實現한 다음 「高麗聯邦共和國」의 國號를 가지고 하나의 國家로 들어가야 된다』고 主張하면서 南北이 各各 UN에 加入하자는 韓國의 提議는 統一을 願하지 않고 分斷을 固定化시키려는 策動이라고 非難하였다.⁸⁶⁾

또 同年 9月 8日 九九節(北韓政權 樹立日) 25周年을 맞아 행한 政務院 總理 金一의 紀念報告演說에서도 南北韓 同時UN加入이 「두 개의 韓國을 永統化한다」는 主張을 되풀이 하면서 現在 「뉴욕」에 北韓의 UN代表部를 設置한 것은 決코 北韓의 UN加入을 위한 目的의 外가 아니라 南北韓 同時加入을 沮止하기 위한 것이라고 主張하였다.⁸⁷⁾ 역시 同 9月 26日에 發表된 北韓의 對UN備忘錄에서도 南北韓의 同年UN加入을 反對하면서 金日成의 5大綱領에 依拠한 對UN態度를 闡明하였고,⁸⁸⁾ 同 11月 14日 第28次 UN總會에 參席한 北韓代表 李鍾木(外交部 副部長)의 政治委에서의 첫 演說에서도 南北韓 同時加入 主張은 韓國分斷을 永久化하려는 策動이라고 非難하면서 「高麗聯邦國」이름밑에 UN加入을 해야 한다고 力說하였다.⁸⁹⁾ 그리하여 南北韓同時加入問題에 관한 한 北韓은 設使 UN總會에서 同時加入案이 通過되더라도 加入하지 않겠다는 態度를 明白히 밝히고 있다.⁹⁰⁾

이렇게 볼때 北韓의 對UN戰略은, ① 「두 개의 韓國化」에 대한 反對立場을 堅持하면서 73年 第28次總會에 처음으로 同時招請된 것을 契機로 하여 언제인가 同時加入이 되기 前까지 韓國이 차지

하고 있는 UN에서의 法統을 攪亂시키고. ② 北韓의 UN에서의 地位向上을 圖謀하며. ③ 韓國問題를 UN밖으로 誘導함으로써 對UN 關係에 있어 韓國과 同一한 次元을 享有하려는데 目標를 두고 있다. 91)

2. 對UN 關係

北韓은 73年 5月 UN 專門機構의 하나인 WHO (世界保健機構)에 加入한 것을 契機로 하여 73年 9月初 「뉴욕」에 UN 常駐 代表部를 設置하여 同 代表部에 權敏俊을 團長으로 한 15名으로 構成된 大規模의 「움저버」團을 派遣하였다. 이와 함께 「제네바」 UN 事務所에도 「움저버」代表部 겸 國際機構 代表部를 設置하였는데, 여기에는 代表 진중국외에 11名이 派遣되었다.

한편 73年 10月 1日 UN 總會 第1委員會(政治委)에서는 韓國問題 討議에 南北韓代表를 無條件 同時招請할 것을 滿場一致로 決議함으로써 UN 史上 最初로 北韓은 第28次總會에 「움저버」로 參席하게 되었다. 원래 南北韓 招請問題는 60年 第15次總會 以來 北韓이 UN의 權威와 權能을 認定하는 경우 韓國問題討議에 招請하자는 이른바 Stevenson 案(條件附招請案)으로서 계속 一貫 되 왔으나, 이처럼 無條件 同時招請案이 決議된 것은 北韓의 對 UN 外交 史上 劃期的인 일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北韓이 政治委에서의 韓國問題討議에 韓國과 같이 參席하게 됨으로써 南北韓 雙方은 對UN 外交戰을 바로 UN 現場에서 展開하게 되었다.

北韓은 지난번 第 28 次總會때 外交部 副部長 李鍾木을 首席으로 하는 大規模 代表團을 派遣하여 對 UN 總力外交를 벌인 바 있다.

이와같이 對 UN 外交에 커다란 成果를 올린 北韓은 南北韓 同時加入問題에 대하여는 「두개의 韓國」을 永統化한다는 表面上의 理由를 내세워 反對하는 立場을 取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同時 UN 招請 및 UN 代表部 設置는 同時加入問題와는 別個의 것이라는 主張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韓國이 加入해 있는 WHO에 73年 5月 이미 加入한 것을 비롯하여 73年 7月 UN 直屬機構인 UNC-TAD (UN 通商開發會議)에, 그리고 最近 (74年 5月)에는 UPU (万国郵便聯合)에 加入하였으며, 앞으로도 UN 傘下 여러 機構에 加入하겠다고 公言하고 있다. 92)

바로 여기에 北韓의 對 UN 外交에 있어 二律背反性이 露呈되고 있다고 할 것이며, 기실 北韓의 對 UN 外交는 兩面戰術로 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벌써 北韓은 韓國이 UN 加入을 申請한 뒤를 이어 49年 2月과 52年 1月 두차례에 걸쳐 加入申請을 했던 事實과 蘇聯이 總會의 勸告로 57年과 58年 韓國加入問題가 安保理에서 審議될 때 南北韓 同時加入修正案을 提出했다가 否決되자 韓國 单独加入案에 拒否權을 行使했던 事實(表 13 參照), 그리고 그동안 北韓이 계속 韓國과 同等한 國際的 地位確保 및 「두개의 韓國」을 翻策하여온 事實등을 勘案할 때 오늘날 北韓의 對 UN 外交의 二律背反性은 더욱 明白해진다. 더욱기 UN에서 韓國問題討議時 北韓 代表가 「領土의 權利」를 가지고 發言해야 한다고 主張한 것은 國際的 現狀固定化 趨勢의 環境을 考慮하여 韓半島에서의 「두개의

實在」를 前提로 한것임을 北韓 스스로가 認定하고 있다는 面에서 北韓의 對UN外交의 兩面戰術의 性格은 더한층 浮刻되고 있다. 다음에 過去 UN의 南北韓 加入申請 處理狀況을 보면 <表 - 13 > 과 같다.

<表 - 13 > < UN의 南北韓加入申請處理狀況 >

年月日	韓 國	年月日	北 韓
49.1.19	韓國加入 申請	49.2.9	北韓加入 申請
2.16	安保理, 韓國加入申請 委員會 回附決定 (贊 9, 反 2, 棄 1)	2.16	安保理, 加入申請 委員會回附案否決 (贊 2, 反 8, 棄 1)
4. 8	安保理, 韓國加入建議案否決 (贊 9, 反 2, 蘇聯拒否權行使)		
11.22	第 4 次總會, 韓國이 UN加入資格 을 具備하고 있음을 決議하고 安保理에 韓國加入申請 再審을 要請 (贊 50, 反 6, 棄 3)		
51.12.22	加入再申請 (強勉代表)	52.1.2	加入再申請 (57年 蘇聯의 南北韓同 時加入案에 包含 處理)
55.12.8	安保理, 「 18 個國」 一括加入建議에		

年月日	韓 国	年月日	北 韓
55.12.8	대한 自由中国修正案(韓国, 越南追加案) 否決(贊9, 反1, 蘇聯拒否權 行使)		
57.2.28	第11次總會, 韓国加入案 再審 決議案 採択(贊40, 反8, 棄16) ※ 蘇聯이 南北韓同時 加入案을 提出했으나 投票에 不回附.		
9.9	安保理, 總회의 韓国加入建議案 否決(贊10, 反1, 蘇聯拒否權 行使)	57.9.9	安保理, 蘇聯의 南 北韓同時加入案否決 (贊1, 反9, 棄1)
10.25	第12次總會, 韓国加入再審決議 案採択(贊51, 反9, 棄21)		安保理, 蘇聯의 南 北韓同時加入案否決 (贊1, 反8, 棄2)
58.12.9	安保理, 總회의 韓国加入再審 建議案否決(贊9, 反2, 蘇聯拒 否權行使)	57.12.9	
61.4.21	加入申請再審要求(鄭一亨 外務 長官) 했으나 5.16으로 不 討議.		

3. 「韓國問題」決議案

아다시피 71년까지만 하여도北韓의 對UN 政策을 代弁한 것은 「몽고리아」, 「알바니아」등 共產國家들로서 非同盟 中立國의 全般的인 支持를 받지 못하였으나, 72年 第27次 總會에서는 事實上의 北韓案을 從來와는 달리 非同盟 中立國이 提案하였다. 즉 同年 7月 17日 「알제리」를 비롯한 非同盟 13個國은 所謂 「韓半島의 自主平和統一 促進을 위한 有利한 條件造成」이라는 새로운 名稱이 붙은 韓國問題決議案을 共同提案하였다. 「알제리」案이라 불리는 同決議案의 11個項으로된 說明文의 主要內容은, ① UNCURK의 活動中止 ② 駐韓UN軍司令部 廢止 및 UN 旗 使用中止 ③ 南北韓의 交渉促進 ④ 外軍(駐韓美軍) 撤収 ⑤ 韓國에 대한 外國의 武力干涉 禁止등이며, 아울러 韓國問題討議時 南北韓代表 同時招請도 要求하였다.⁹³⁾ 그러나 이 「알제리」案은 運營委와 總會에서 自由陣營이 提案한 「韓國問題討議 1年延期案」 즉 「韓國問題不上程案」이 먼저 可決됨으로써 (運營委에서 贊 16, 反 7, 棄 1; 總會에서 贊 70, 反 35, 棄 21) 上程에 失敗하였다.

73年の 第28次總會에서는 역시 「알제리」를 비롯한 20余 非同盟國 및 共產諸國이 72年 決議案의 題目과 같은 韓國問題決議案을 共同提案하였는데, 同決議案은 題目도 그렇거니와 72年の 「알제리」案 內容과 類似한 것으로서 먼저 前文部分에서는 ① 軍事對決 解消와 平和協定 締結 ② 多方面的인 南北交流와 協調 ③ 單一國家로 統合후 UN 加入등 所謂 金日成의 「平和統一 5大

綱領」의 내용과 같은 것을 主張하였고. 이어 本文部分에서는 이러한 것을 위한 有利한 條件을 造成하기 위해 ① UNCURK 解体 ② 駐韓外軍의 UN旗 使用權利 排除 및 UN軍司領部 解体 ③ 駐韓外軍의 全面 撤収등을 要求하였다. ⁹⁴⁾

한편 韓國友邦側은 73年 8月末에 열린 UNCURK 全体會議에서 UNCURK를 自進 解体키로 한 方針에 따라 第28次 總會에 提出한 韓國問題決議案에서도 이의 解体에 同意한다는 內容을 담았다. 즉 韓國의 友邦國들이 提出한 「韓國의 平和保衛과 統一促進에 관한 決議案」이란 이름이 붙은 새로운 決議案은 ① 南北對話 및 이의 成功 希望 ② UNCURK 自進解体 支持 ③ 南北韓 同時 UN加入 支持 ④ UN安保理가 關係當事國들과 適當한 過程을 통한 韓國問題 考慮 希望등 4個項의 內容을 包含하였다. ⁹⁵⁾ 이러한 韓國 友邦의 決議案은 새로운 國際情勢 狀況下에서 取해진 対処策으로서 從來와 判異한 것임은 勿論이다. 結局 73年 11月 20日 UN政治委는 韓國問題에 관한 北韓側의 「알제리」案과 韓國側의 西方側案등 두個의 決議案 共同提案國들과 協議한 끝에 第28次 總會 表決에 兩決議案을 回附하지 않기로 合意함으로써 韓國問題討議를 事實上 終結짓고 말았다. 韓國問題에 관한 合意聲明에서는. UN은 南北韓의 7.4 共同聲明에 滿足하며 이를 注視한다면서 『南北韓의 對話를 계속할 것과 7.4 共同聲明精神에 의해 獨自적이고 平和적인 韓國 再統一을 위한 多方面의 交流와 協調가 이루어지기를 希望한다. UN總會는 UNCURK의 即刻 解体를 決議한다』고 하였다. ⁹⁶⁾ 事實上 韓國問題에 관해 東西 兩陣營의 妥協.折衷을 통한 이러한

對決回避 措置는, UN 安保理 常任理事國들과 有關國들간의 韓國問題에 관한「조용한 討議」를 勸迎한다고 밝힌 「키신저」 美國務長官이 中共 訪問時 周恩來와의 合意와 또한 蘇聯과의 高次元의 政治的 和解의 產物이었다고 評價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 韓國問題에 대한 如斯한 妥結은, 韓國問題가 갖는 冷戰的 要素라든지 強大國간의 利害相衝이나 政治的 對決이란 要素를 除去함으로써 強大國에 의해 造成된 和解時代에 適応하려는 UN의 政治雰圍氣를 反映한 것으로 看做된다.

그런데 韓國問題에 관한 妥協案이 政治委에서 正式으로 採決했을 때 北韓 UN代表團은 聲明을 통해 韓國問題의 討議에서 UNCURK 解体가 決定된 것은 自己들의 큰 勝利라고 말하고, 『UNCURK가 根拠를 喪失한 것과 같은 理致로 UN軍司令部도 存在할 根拠가 없 어졌다』고 主張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UN軍司令部와 外軍의 撤 収를 위해 鬪爭하겠다』고 宣言하였다.⁹⁷⁾ 이 같은 北韓側의 反應은 앞으로도 다시 韓國問題를 UN에 上程할 것임을 示唆하는 것으로 보여진다.⁹⁸⁾ 다음에 70년부터 72년까지의 韓國問題에 관한 UN의 投票性向을 보면 <表-14>와 같다.

〈表-14〉 〈韓国問題에 대한 UN投票性向〉 (70~72年)

27次		26次				25次					会 期	
總會	運營委	#	#	總會	運營委	總會	#	#	#	政治委		
#	韓國問題 討議延期案	統韓決議案	연커크解體案	유엔撤収案	韓國問題 討議延期案	(안) 統韓決議案 UN政治委投票	연커크解體案	유엔軍撤収案	同時招請案	南北韓無條件	韓國單獨招請案	議 案
72.9.22	72.9.21	71.9.25	71.9.25	71.9.25	71.9.23	70.12.7	70.11.24	70.11.24	70.10.30	70.10.30	日 字	
70	16	70	68	68	13	67(69)	32	32	40	63	贊	
35	7	21	25	28	9	28(30)	64	60	54	31	反	
21	1	23	22	22	2	22(23)	26	30	25	25	棄	
5	1	16	15	12	1	10(5)	5	5	8	8	欠	

八. 對 南 關 係

1. 統一基本戰略과 平和統一攻勢

(1) 먼저 南北統一에 대한 北韓의 基本戰略을 보면⁹⁹⁾, 70年 11月 勞動黨 第5次大會에서 행한 金日成의 演說에 잘 나타나 있다.

즉, 『祖國統一의 偉業을 實現하기 위해서는 우리 祖國의 統一을 가로막는 基本的 障礙物인 美帝侵略者들을 南朝鮮에서 몰아내고 그 植民地 統治를 清算하며 現 軍事「팻쇼」獨裁를 뒤집어엎고 革命의 勝利를 이룩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南朝鮮에 참다운 人民의 政權이 서면 共和國 北半部の 社會主義 力量과 南朝鮮의 愛國的 民主力量의 團合된 힘에 의하여 우리 祖國의 統一은 順調롭게 實現될 것이다.¹⁰⁰⁾』라고 한 金日成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美軍撤収와 所謂 「南朝鮮革命」이 實現된 후 새로이 樹立된 南韓의 「人民政權」과 합쳐 統一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北韓의 統一基本戰略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統一問題와 「南朝鮮革命」問題인데, 金日成이 主張하는 『統一問題의 前提는 곧 南朝鮮革命 問題이며, 統一의 結果는 全國的인 共產革命의 遂行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北韓이 主張하는 어떤 形式의 統一方案도 그것은 곧 南韓에서의 革命을 떠나서는 論議될 수 없는 性格의 問題인 것이다.¹⁰¹⁾

이처럼 北韓은 南北統一問題를 革命으로 規定하고 있는 바 60年

代까지 南韓革命의 性格을 所謂 「反帝·反封建民主主義革命」이라는 즉 「民族解放 民主主義革命」으로 規定했던 北韓은 70年代를 맞으면서 南韓革命의 性格을 그 보다 한 段階 發展된 이른바 「人民民主主義革命」으로 規定하였다.

즉, 金日成은 上記 第5次 党大會에서의 演說에서 『南朝鮮革命은 美帝國主義 侵略者에 反對하는 民族解放革命과 同時에 美帝國主義者의 앞잡이인 地主·買辦資本家·反動官僚와 그들의 「팻쇼」統治에 反對하는 「人民民主主義 革命」이다.』¹⁰²⁾ 라고 宣言했던 것이다.

따라서 人民民主主義革命의 目的은 南韓에서 우선 人民民主主義 政權을 樹立하고 그 다음에 이 政權과 合作해서 赤化統一을 達成 하자는 것이다.¹⁰³⁾

이와같이 70年代에 와서 對南戰略 즉 統一戰略의 一環으로서 北韓이 人民民主主義革命 路線을 들고 나온 것은 對內外情勢와 關聯되어 있는 것임은 勿論이다. 이 人民民主主義 革命戰略은 71年 4月 外相 許淡의 「8個項 統一方案」의 骨幹을 이루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 以後 平和統一攻勢를 擧고 있는 그 基本이 되는 것이다.¹⁰⁴⁾ 端的으로 北韓은 對內外情勢에 鋭敏하게 反應하면서 平和統一攻勢를 彈力的으로 利用하여 人民民主主義 革命戰略을 有效 適切히 推進해 나가려 하는 것이다.¹⁰⁵⁾ 다음에 北韓의 「南朝鮮 革命」 戰略 및 祖國統一과 「南朝鮮革命」과의 關係를 比較해 보면 <表15~16>와 같다.

〈表 - 15〉

〈北韓의 「南朝鮮革命」戰略〉

区 分	内 容
革命의 目標	政府 顛覆과 人民政 權樹立
革命의 性格	民族解放 民主主義革命보다 한 段階 發展한 人民民主主義革命
革命의 基本 任務	南朝鮮에서 美帝를 追放하고 그 植民統治를 없애며 軍事「앞쇼」獨裁를 顛覆하고 先進的인 社會制度를 세워 南朝鮮社會의 民主主義的 發展을 이룩
革命의 動力	人民民主主義革命에서 利害關係가 깊은 各階級과 階層들로서 南韓의 勞動階級・農民・進歩的인 青年學生・知識人・愛國的 軍人・一部愛國的 民族資本家들과 小資產階級
革命의 鬭爭對象 革命의 戰略 的 方針	美帝와 그와 結託하 地主・買辦資本家・反動官僚 ①主力軍編成... Marx-Lenin 主義黨을 組織하여 勞動者 農民結束 ②統一戰線形成... 革命에 利害關係가 있는 모든 勢力 組織化 ③反革命勢力弱화... 南韓에서 現體制를 反對하여 鬭爭 (政治鬭爭과 經濟鬭爭 合法 및 半合法 鬭爭과 非合法鬭爭, 暴力鬭爭과 非暴力鬭爭, 大規模鬭爭과 小規模鬭爭

区 分	内 容
革命의 当面 課業	民主化 實現을 위한 鬪爭展開, 言論, 出版, 結社, 示威의 自由를 爭取하여 南韓에서 展開되고 있는 各種運動을 政治鬪爭으로 轉換
統一革命黨	<p>「南朝鮮革命」에서 參謀部的 役割担当</p> <p>〈綱 領〉 ……① 自主的 民主主權 樹立</p> <p>② 社会政治生活에서 民主主義 實現</p> <p>③ 民主的 土地改革實施</p> <p>④ 重要産業 国有化</p> <p>⑤ 民主的 勞動法 實施</p> <p>⑥ 男女平等實現</p> <p>⑦ 民族文化發展</p> <p>⑧ 無料教育制實施</p> <p>⑨ 無料治療制實施</p> <p>⑩ 自主的 民族軍隊 創設</p> <p>⑪ 自主的 外交活動</p> <p>⑫ 自主的 平和統一 成就</p>

資料：第5次 黨大會에서 金日成이 행한 事業總和報告중 「南朝鮮革命과 祖國統一을 위하여」라는 演說을 基礎로 하여 作成한 것임.

※ 統一革命黨 綱領은 金南植, “朝鮮勞動黨 第5次大會”, 亞細亞問題研究所, 北韓政治體系研究, 1972, p.153

〈表 - 16〉 〈北韓의 祖国統一과 「南朝鮮革命」對比〉

区分	課業	主体	包括地域	推進勢力	遂行方途
祖国統一	民族解放 (國土民族原狀回復)	南北人民	南北韓全域	北韓의 革命力量	平和的方法可能
南朝鮮革命	階級解放 (새制度樹立) (現秩序顛覆)	南韓人民	南韓地域	南韓의 勞動者 農民과 一般大衆	暴力的方法 平和的方法不可能

(2) 다음에 70年代와서 北韓의 平和統一攻勢의 展開狀況을 概括해 보면, ¹⁰⁶⁾ 먼저 金日成은 第5次 党大会에서 ① 駐韓美軍撤収, ② 南北韓 軍隊의 10萬 또는 그 以下로 減縮, ③ 武力不行使 協定 締結, ④ 經濟·文化交流과 人士往來, ⑤ 總選舉를 통한 民主主義 統一政府 樹立, ⑥ 統一政府樹立의 過渡措置로서 南北聯邦制 實施등을 主張한데 ¹⁰⁷⁾ 이어 71年 4月12日 最高人民會議 第4期 5次會議에서 外相 許淡은 「現 國際情勢와 祖国의 自主的 統一을

促進시킬데 對하여」라는 演說에서 所謂 「祖国平和統一 8 個項擧」
 을 提示하였다. 그 內容은 金日成이 主張한 위에 列擧한 方案에
 다 韓·美 防衛條約과 韓·日條約등 韓國의 對外條約 廢棄, 南韓에
 서의 政治活動 自由와 政治犯 釋放, 위와 같은 問題를 協議하기
 위한 各 政黨, 大衆團體와 모든 人民的 性格을 가진 사람들로서
 構成된 南北政治協商會議 開催등이다. 108) 아울러 許淡은 여기서
 韓國이 南北聯邦制案을 受諾할 수 없다면 最高民族會議과 經濟委員
 會를 構成할 것을 내세웠다. 109) 許淡의 이러한 8 個項 統一方案
 은 그 內容으로 보아서 이미 50 年代 以來 反復 主張해온 것과
 별 다른이 없는 것이며 다만 從前에 主張해온 提案들을 時期에
 맞게 綜合해서 내놓은 것에 不過한 것이다. 그리고 同年 8 月
 6 日 金日成은 「시하누크」 歡迎 平壤市 群衆大會에서 統一問題
 協議를 위해 韓國의 執權黨인 民主共和黨을 包含한 諸政黨, 社會
 團體 및 個別的 人士들과 아무대나 接觸할 用意가 있음을 闡明하
 였다. 110)

그리고 나서 同月 12 月 離散家族을 찾기 위한 韓國의 赤十字
 會談 開催 提議에 대해 北韓은 即刻적으로 應諾했던 것이다.

72 年에 들어 와서는 年初부터 北韓은 平和統一攻勢를 보다 積
 極化하였는데, 1 月 10 日 金日成은 日本 說亮新聞 高木健夫記者와의
 會見에서 ① 南北韓 平和協定 締結 ② 南北韓 相互不可侵 宣言
 ③ 駐韓美軍 撤収 ④ 南北韓 兵力 大幅 減縮 ⑤ 韓國의 民主共
 和黨등 全 政黨과 政治協商 開催 ⑥ 南北韓의 自由往來등을 提議

이 9월 17일에 金日成은 日本 毎日新聞 記者團과 가진 會見에 하였다. 114)

결과 軍隊縮小, ④ 南北韓의 政變, 大衆團體 등의 會談 開催를 拳論 社說에서 ① 自主性의 原則, ② 駐韓美軍 撤收, ③ 平和協定 縮 平和統一攻勢의 一環으로 풀이되는 바 同 聲明에 대한 勞動新聞 南北共同聲明이 나왔고 이 共同聲明이 發表된 것도 結局 北韓의 이처럼 北韓이 平和統一攻勢를 積極化해 나가는 過程에서 7.4

으로 雙方의 兵力減縮을 實現하는 4段階를 具體的으로 明示하였다. 113)

는다는 宣言을 하고, ③ 다음에 駐韓美軍을 撤收시키고, ④ 마지막 結에 있어 ① 現狀에서 協定을 締結하고, ② 條文으로 攻擊을 양 民間防衛力 相互縮小 등을 提議하였고 특히 金日成은 平和協定 縮 兵力과 施設撤去, 雙方 兵力 相互減縮, 平和協定締結, 必要한 將來에 「켈릭·래리슨」 記者와의 會見에서 金日成은 非武裝地帶로 부터

일마후 6월 21日 역시 北韓을 訪問한 「워싱턴·포스트」紙의

로 統一되기를 希望한다고 말하였다. 112)

리고 相異한 制度와 思想의 共存을 許容하는 條件 밑에서 平和的으로 다고 말하면서 그 代身 韓半島 人民 相互間의 決定을 통하여 그 記者와의 會見에서도 이자는 武力에 의한 再統一을 支持하지 않는

問한 「뉴욕·타임즈」紙의 「래리슨·슈츠베리」와 「존·리」 두

撤收시킬 수 있다고 言明하였다. 5월 26日 金日成은 北韓을 訪

前提로는 보지 않고 政治協商을 開催함으로써 美軍도 더욱 빨리

하였으며 111) 특히 同 會見에서 金日成은 美軍의 撤收를 政治協商의

서 『平和的 南北統一을 하루 빨리 實現시키기 위해 南北聯邦制 實施가 必要하다』는 것을 거듭 主唱하였다. 115)

73년에 들어와서 4月 5~10日間에 開催된 最高人民會議 第5期 2次會議에서 政務院 總理 金一은 統一問題에 대한 報告演說을 통해 南北間의 政治, 經濟, 文化, 軍事, 外交 등 各 分野에 걸친 「多方面的인 合作」을 實現하자고 主張하면서 이를 위한 前提條件으로서 ① 武力增強과 軍備競爭 中止, ② 駐韓美軍을 위시한 一切의 外國軍 撤収, ③ 南北韓 軍隊의 減縮과 軍備 大幅 縮小, ④ 外國으로 부터의 武器, 作戰裝備 및 軍需物資 搬入 禁止, ⑤ 以上의 問題 解決을 위한 南北間의 平和協定 締結 등 5個項을 提示하였다. 116)

특히 同 會議에서는 如斯한 內容을 담은 世界 各國의 議會와 政府 그리고 美國議會에 보내는 書翰을 採択하고 發送까지 하였다. 117)

한편 앞서도 暫間 言及한 바와 같이 韓國의 「平和統一 外交 宣言」이 發表된 6月 23日 北韓은 所謂 「平和統一 5大綱領」을 内外에 闡明했는데 「체코」共産黨 總秘書 「후사크」의 北韓 訪問 歡迎 平壤市 群衆大會에서 金日成은 自主的 平和統一方針을 새로이 内外에 宣言한다면서 ① 南北韓 軍事的 對峙狀態 解消와 緊張狀態 緩和, ② 南北韓의 多方面的인 合作과 交流實施, ③ 南北韓의 各界 各層 人民들과 政黨·社會團體 代表들로 構成되는 「大民族會議」 召集, ④ 現存制度를 當分間 그대로 두고 南北聯邦制를 實現하여 國號를 「高麗聯邦共和國」이라 함, ⑤ 單一한 「高麗聯邦共和國」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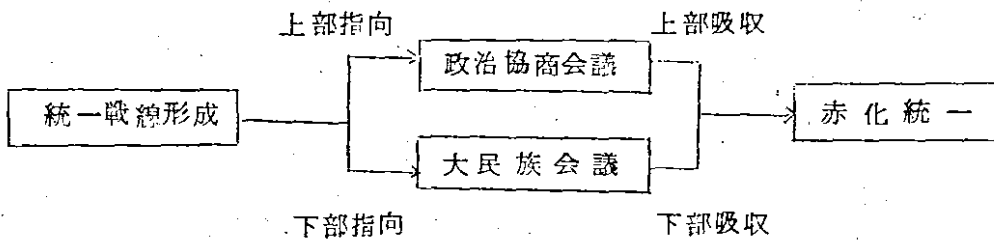
国号에 의한 UN 加入등 5個項을 내놓았다. 118)

따라서 오늘날 北韓의 統一戰略路線은 바로 金日成의 이 「平和 統一 5大綱領」에 基礎하고 있는 것이다. 119)

(3) 그런데 이 5大綱領에서 「大民族會議」와 「高麗聯邦共和國」이라는 새로운 用語를 使用하는 것이 좀 색다른 것으로 大民族會議는 從來 主張해 온 最高民族會議를 戰略적으로 修正한 것이며 會議에의 參加範圍를 擴大한 것이다.

이와같이 從前에는 南北韓의 政黨·社會團體 代表로 構成하자는 데서 各界各層으로 構成되는 「大民族會議」를 召集하여 統一問題 全般을 廣範히 討議해야 된다고 主張하는 것은 共產主義者들의 革命戰線의 基本인 統一戰線形成에 立脚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20)

(아래 圖式 參照)



그리고 「高麗聯邦共和國」 樹立 主張도 역시 從來의 聯邦制 實施 主張과 同一한 것으로 南北韓의 現 政治制度를 그대로 두고 對內外的으로 共同步調를 取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主張은 表面上 祖國平和統一을 앞당기기 위한 過渡的

措置로서의 意味를 가지고 있으나 裏面的으로는 聯邦制下에서의 總
選舉 實施라는 基本戰略을 遂行하기 爲한 底意가 있는 것이다.¹²¹⁾

北韓의 聯邦制案은 「共存」 概念을 두렷이 나타내고 있으면서도
主客觀的 情勢의 推移에 따라 南北聯邦制를 對南赤化를 위한 革命
的 立場에서 다룰 것이며, 反對로 對南赤化戰略이 難關에 부딪칠
경우에는 南北間의 平和關係 維持 및 自己體制 保全이라는 立場에
서 다룰 것이라는 點을 明白히 알 수 있다.¹²²⁾

요컨대 北韓의 南北聯邦制案은 統一戰線形成을 劃策하는 이른 바
「두개의 韓國」 段階를 거친 「하나의 朝鮮」 戰略의 基本임을
알 수 있다.¹²³⁾

그런데 北韓이 南北聯邦制案을 처음으로 提起한 것은 60年 8月
14日에 열린 8·15 解放 15周年 慶祝大會에서 행하 金日成의
演說¹²⁴⁾에서 부터였는데 이 때의 聯邦制案과 現在의 聯邦制案을
서로 比較해 보면 <表-17>과 같다.¹²⁵⁾

이렇게 볼 때 北韓의 統一戰略은 「아데올로기」的 吸收統一에
基礎하고 있으며, 이러한 統一目標의 達成을 위해 體制內外的 環境
要因과 「統一」이라는 民族要求를 時間의 經過에 따라 暴力攻勢面
과 平和攻勢面の 兩面에서 活用하고 있는 것이다.¹²⁶⁾ 이 兩面の
內容을 要約하면 <表-18>과 같다.

이러한 兩面攻勢의 現象은 北韓이 지금까지 主張해온 統一方案에
서 잘 나타나 있거니와 平和攻勢面은 結局 「두개의 韓國」의 段
階를 거친 「하나의 朝鮮」이라는데 主眼點을 두고 있으며, 暴力攻

勢面은 「武力的 方式」의 段階를 거친 「하나의 朝鮮」이라는 데 着眼點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7)

따라서 北韓의 統一戰略은 <表-19>와 같은 하나의 圖式으로 抽出할 수 있을 것이다.

<表-17> <北韓의 南北聯邦制案比較>

区 分	60.8.14 처음主張한 南 北 聯 邦 制	73.6.23平和統一 5大綱領에 依拠한 南 北 聯 邦 制
制 度	現政治制度存続 兩政府의 活動保障	現政治制度의 當分間 存続
前提条件	外勢干涉없는 南北總選舉 最高民族委員會	軍事的對峙狀態解消 大民族會議
民族會議	①構成：兩政府代表 ②任務：主로 經濟文化 發展을 統一的으로 調節	構成：南北各界各層人民들과 政黨社會團體代表
交 流		多面的인 合作과 交流實現
国 号		高麗聯邦共和國
UN 關係		單一國家로서 加入
其 他	民族委員會를 받아 들이 지 못할 경우 産業界 代表로 構成되는 經濟 委員會를 構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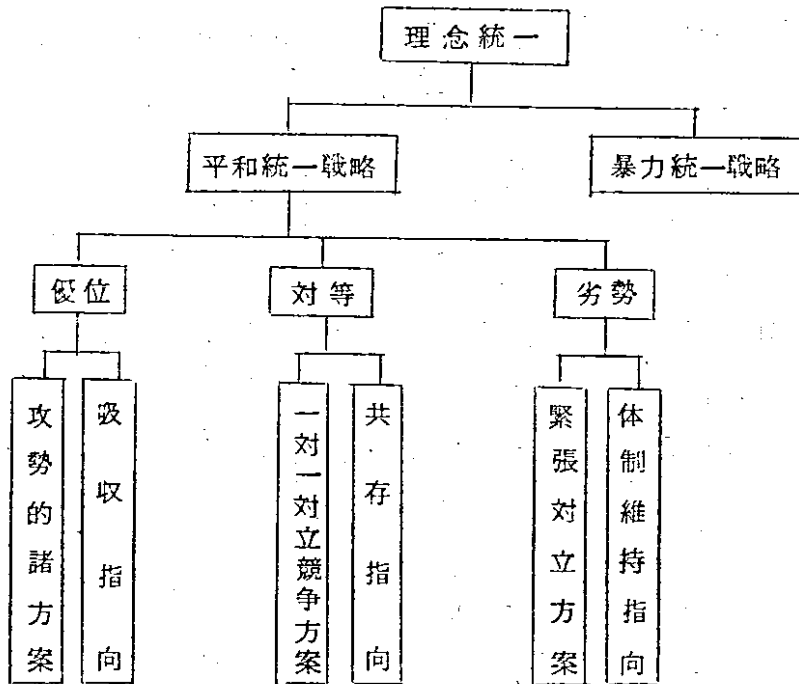
〈表-18〉

〈北韓의 統一戰略의 兩面〉

平和攻勢面	暴力攻勢面
駐韓外軍撤収 平和協定締結 兵力減縮 政治協商開催 多方面的合作と交流 南北總選挙実施 南北聯邦制実施	人民民主主義革命 (統革党 - 労働者 + 農民 + 学生 + 知識人) 4大軍事路線 (게릴라派遣, 軍事的 衝突)

〈表-19〉

〈北韓의 統一戰略〉



2. 南北對話 (人道的 對話와 政治的 對話)

(1) 南北韓間에는 南北赤十字社에 의한 人道的 對話와 7.4 共同 聲明에 依拠한 南北調節委員會의 政治的 對話가 分斷 4 半世紀만에 이루어지게 되었고,¹²⁸⁾ 그새 서울과 平壤을 번갈아 가면서 서로 次元을 달리하는 二個의 南北對話 「채널」이 거의 同時的으로 機能을 發揮해 오다가 現在는 二 對話가 모두 中斷狀態에 빠지고 말았다.

먼저 71年 8月12日 大韓赤十字社의 提議로 始作된 離散家族을 찾아 주기 위한 南北赤十字會談은 71年 9月 20日 第1次 豫備會談에서부터 72年 8月 11日 最終豫備會談에 이르기까지 都合 25次의 豫備會談을 거친 후 72年 8月 30日부터 平壤에서 第1次 本會談에 들어가 73年 7月 11日부터 열린 第7次 本會談에 이르기까지 모두 7次의 會談을 가졌다.

本會談의 議題는 ① 離散家族 및 親戚의 住所와 生死確認, ② 離散家族 및 親戚의 自由訪問과 相逢, ③ 離散家族 및 親戚의 書信去來, ④ 離散家族의 再結合, ⑤ 其他 人道的인 問題등 5個項으로서 (72.6.16 第20次 豫備會談에서 確定), 第3次 本會談 때부터 이중 第1項에 대한 實質討議에 들어갔으나, 第1項과 關聯된 事業의 解決 및 實踐에 관한 雙方의 接近方法과 基本的 立場의 差異點 때문에 具體的인 合意에 이르지 못하고 第7次 會談때까지 아무런 成果도 보지 못하였다.

특히 北韓側은 第3次 會談 以來 南韓에서의 反共法·國家保安法

謂「環境造成問題」拳論은 南韓에서 反共法과 國家保安法을 廢棄
 事業을 展開하기 위한 底意를 露出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고 所
 다 赤十字了解 解說委員會 派遣하자는 것은 그들의 共產黨式 對南
 赤十字會談을 利用하려는 것임을 뜻하는 것이다. 더우기 滴·里마
 이는 말할 것도 없이 北韓이 對外戰略까지 包含한 政治戰略으로
 하였다.

和統一을 앞당긴다는 구실 아래 政治會談化하려는 試圖를 執拗하게
 하여 會談의 本然의 目的인 離散家族을 찾아주는 問題에 앞서 平
 等 實現하는 것은 곧 最高의 人道主義를 具現하는 것』(129)이라고
 됨으로써 만 終局的으로 解決될 수 있으며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
 은 『南北으로 分裂된 우리나라에서의 人選의 問題는 祖國이 統一
 로 連結시키려는 政治的 立場을 계속 取해 왔다. 그래서 北韓側
 民族은 分離될 수 없다고 主張하면서 赤十字會談을 統一問題와 바
 막상 赤十字會談에 임하는 基本立場에 있어 北韓側은 人道主義와
 韓半島사키기도 하였다.

人民들의 參加가 必要하다는 態度를 계속 堅持하여 政治色을 짙게
 게다가 南北間의 두 執權黨이나 諸政黨, 社會團休 그리고 広範한
 解說委員會 現地에 派遣할 것 등을 主張하였다.

死을 알리는 事業을 위해 雙方이 適當한 人員의 赤十字 了解
 「環境造成」 問題를 提起하였을 뿐만 아니라 離散家族의 住所, 生
 律的·社會的 障礙를 除去하여 條件을 造成해야 한다』는 이른 바
 廢止는 人道主義事業 實現의 先決問題라고 하면서 『南韓에서의 法

시켜 共産黨 活動을 蠢動시키려는 戰略인 同時에 人道的 赤十字會談에 政治性을 띄움으로써 會談 失敗의 경우를 對備한 戰術이라 할 수 있다. 130)

그런데다 73年 11月 28日에 열린 第8次 會談 開催를 위한 第2次 連絡會議(板門店)에서도 韓國側이 第8次 會談을 서울에서 早速히 열것을 提議하는데 대해 北韓側은 ① 南北赤十字會談에서 非赤十字 人士 除去, ② 韓國의 反共法 및 國家保安法 違反者 釈放, ③ 서울은 會談 霧靄氣가 좋지 않으므로 다음 會談은 平壤에서 열것등 세가지 條件을 提示하면서 이를 事實上 拒否하였다. 131)

結局 如斯한 北韓側의 內政干涉的이고 政治宣傳的인 條件 提示는 赤十字會談의 展望을 어둡게 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다음에 赤十字會談 過程에서 提起된 南北 雙方의 提案을 要約하면 <表 - 20 > 과 같다.

<表 - 20 > 南北赤十字會談에서 議題1項에 대해 提起된 雙方 提案(住所・生死確認事業)

	韓 國 側	北 韓 側
環 境 造成論	1. 非赤十字的 要素이므로 排除함이 妥當 2. 自由意思, 身分保障은 赤十字가 責任질 것임. 3. 反共法, 國家保安法拳論은 赤十字 領域 밖의	1. 反共法, 國家保安法廢止는 人道主義, 事業實現의 先決 問題임. 2. 條件環境改善問題는 人道主義의 根本問題로서 이 問題의 外面은 人道的事業의

	韓 國 側	北 韓 側
	問題이며 相對方體制에 대한 干涉임.	外面임. 3. 條件環境의 改善없이는 會議 成果는 期待할 수 없음.
家族· 親戚의 範圍	1. 本人의 呼訴와 相對方의 確認(依頼人과 被依頼人 双方의 自由意思 모두 保障) 2. 適法한 仲介者로서 赤十字의 介入은 當然함.	1. 相對方의 確認不必要 2. 全体在日僑胞包含 3. 赤十字의 仲介는 時間浪費이며 統制手段임.
찾아주는 方法	1. 赤十字의 仲介役割에 의한 文件 交換方式	1. 当事者가 自由意思에 의한 直接方法(赤十字의 仲介不必要)

(2) 한편 南北調節委에 의한 政治的 對話는 모두 다섯차례나 이루어졌는데 第1次 南北調節委 共同委員長會議는 72年 10月12日 板門店에서 열렸고, 第2次 共同委員長會議는 同年 11月30日부터 平壤에서 開催되었다. 同 第2次 會議에서는 對南·對北 放送을 中止하기로 한 共同發表文을 採択하고 「南北調節委 構成 및 運營에 관한 合意書」를 署名·交換했는데, 이 合意書에 의하면 南北

調節委 機能은 ① 自主的 平和統一을 實現하는 問題, ② 南北의 政黨, 社會團體 및 個別的 人士들이 廣範한 政治的 交流問題, ③ 經濟·文化·社會的 交流와 힘을 합쳐 같이 事業하는 問題, ④ 軍事的 衝突을 防止하고 對峙狀態를 解消하는 問題, ⑤ 對外活動에서 共同步調를 取하여 單一民族으로서 民族的 矜持를 宣揚하는 問題등을 協議 決定하며 그 實行을 保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이 合意書에는 調節委 事業이 進陟되는데 따라 政治·軍事·外交·經濟·文化등 5 個 分科委를 두기로 함과 同時에 板門店에다 「南北調節委 共同事務局」을 設置하기로 하였다.

第 3 次 共同委員長會議는 同年 11 月 30 日부터 서울에서 열려 「南北調節委員會」를 正式으로 構成, 發足시킴으로써 調節委 第 1 次 會議가 열리게 되었다. 73 年 3 月 15 日 平壤에서 開催된 調節委 第 2 次 會議에서는 第 2 次 共同委員長會議에서 合意된 事項들을 보다 具體的으로 討議하였으나 아무런 合意에 到達하지 못하였다.

同會議에서 韓國側은 먼저 經濟 및 社會·文化 分科委를 構成하여 ① 經濟人的 交流, ② 物資의 交流, ③ 經濟生活의 어떤 部分에서의 合同開發과 合同作業, ④ 藝術團, 歌舞團의 交流公演, ⑤ 體育交流, ⑥ 學術 및 社會團體간의 交流, ⑦ 以上の 問題가 效果있게 進展되어 相互 信賴의 바탕이 마련되면 그후에 政治·軍事問題를 討議한다는 것등을 提議하였다. 이에 대해 北韓側은 南北問題의 關鍵은 軍事的 對峙狀態의 解消에 있다고 하면서 ① 軍備縮小, ② 平和協定締結, ③ 南北調節委內의 5 個分科委 同

時 設置, ④ 南北 政党・社会团体의 連席會議을 열어 이 같은 事業을 뒷받침하자는 것등을 主張하였다. 역시 73年 6月 12日부터 서울에서 열린 南北調節委 第3次 會議에서도 第2次 會議 때와 같이 雙方이 主張하는 論點이 서로 맞서 問題 妥結의 余地가 전혀 없었다. 이 3次 會議에서 韓國側은 南北間에 理解와 信賴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가 서로의 社會를 完全히 開放할 것』을 提議하면서 그 具體的 方案으로 經濟 및 社會・文化 分科委를 早速히 發足시켜 이들 分野에서 廣範한 交流를 實施할 것을 要求하는데 대해 北韓側은 역시 ① 外債의 撤収, 軍備縮小, 外國으로부터의 武器搬入 中止, 平和協定締結, ② 政党, 社会团体 등 各界各層을 網羅한 廣範한 政治協商, ③ 5個 分科委 同時 發足등을 거듭 主張하였다. 이처럼 雙方의 基本的 立場의 差異로 말미암아 調節委는 모두 다섯차례의 會議를 거치면서도 아무런 結實을 얻지 못한 채 膠着狀態에 머무르고 말았다.

(3) 그동안 南北對話 過程에서 北韓側 共同委員長 代理 朴成哲 (現 中央人民委 委員겸 政務院 副總理)은 여러 차례 南北間 多方面的인 交流와 合作을 推進한 것을 主張하였는데 그 具體的 內容을 보면 ① 오늘날 南北間에는 各分野의 合作을 實現하는 問題가 成熟한 要求로서 提起되고 있다. ② 經濟分野에 있어서는 地下資源을 共同으로 開發, 利用하는 措置를 取하고 北韓의 豊富한 良質의 鐵鉍石과 南韓의 地下資源을 開發, 利用하는데 서로 技術, 設備, 勞動을 提供할 수 있다.

『統과 統을 함께 볼 때』는 觀点으로서 南北 双方間에는 이처럼
 『誤解나 疑心을 먼저 풀면 韓國側은 主張인데, 反對
 端的으로 말해 北韓側은 『統과 統을 함께 볼 때 相互 疑心이 풀
 度인을 알 수 있다.』

金日成의 「平和統一 5大綱領」만 보더라도 北韓側의 明確한 態
 度對峙狀態를 解消해야 한다는 立場을 固守해 왔다. 이는 所謂
 軍事的 合作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 以前에 南北間의 軍事的
 對峙狀態를 解消해야 한다는 立場을 固守해 왔다. 이는 所謂
 『統一』이라고 主張하였다. (133) 따라서 北韓側은 政治・經濟・文化・
 關鍵的인 問題가 풀리면 南北關係는 調和的인 狀態에 이르게 될
 이라고 하여 『軍備와 兵力이 大幅縮小와 平和協定 締結과 같은
 是 對決』이 아니라 團結이며 「對話는 分裂』이 아니라 統一』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에게 必要한 것은 「對話인
 『緊張狀態의 解消의 根本的인 方法은 軍事的 對峙狀態의 解消』
 먼저 軍事的 問題가 解決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北韓側은
 그리고 이러한 多方面的 合作과 經濟的 實現을 위해서는
 統一 達成에 決定的인 局面을 展開할 것이더라는 것이다. (132)

- ⑥ 南北 聯邦制 實施는 南北關係 改善을 이룩하고 祖國의 自主
 平和를 保障하고 外來侵略에 效果的으로 對処할 수 있다.
- ⑤ 軍事 分野에서의 合作實現은 韓半島의 緊張을緩和함으로써
 物的資源을 效果的으로 動員, 利用함으로써 經濟를 發展시킨다.
- ④ 南北間의 經濟的 合作은 全國的 範圍에서 人的
 있게 한다.
- ③ 漁場을 서로 開放하여 漁民으로 하여금 어디서든지 操業할 수

發想 自体부터가 判異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南北調節委는 雙方間에 基本的 立場과 節次 問題에 있어서의 見解差異를 接近시키지 못하는 한 如何한 妥協點 도 찾기 힘들 것이다.

특히 南北韓의 경우 東西獨과 같은 類型의 背景도 없이 모든 問題를 同時的·複合的으로 解決해 나가야 한다는 點에서 더욱 그러 하다. 그나마도 73年 8月28日 南北調節委 北韓側 共同委員長 金英柱(現 中央人民委 委員 겸 政務院 副總理)가 李厚洛 韓國側 共同委員長과는 더 以上 調節委를 進行시킬 수 없다는 一方的인 聲明을 發表함으로써 調節委를 통한 南北對話는 事實上 決裂의 危機에 直面하고 말았다. 同 聲明은 ① 中央情報部가 金大中氏 拉致事件을 主謀했으며, ② 李厚洛 共同委員長이 7·4 南北共同聲明의 合意 事項을 具體化하는 것을 反對했고, ③ 말로만 完全開放을 떠들면서 實際的 對策을 取하는 것을 回避했으며, ④ 反共政策을 強化하여 數 많은 親共人士와 間諜을 逮捕, 処刑했고, ⑤ 「6·23 平和統一外交 宣言」으로 「두個의 朝鮮」을 劃策하고 있다는 등 非難을 하면서 對話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前提條件으로서 ① 6·23 宣言을 取消 하고, ② 李厚洛 共同委員長을 交替하고, ③ 反共政策을 拋棄하고, ④ 反共法·國家保衛法違反事犯들을 即刻 釈放해야 한다는 것을 들었다. ¹³⁴⁾ 기실 이러한 前提條件을 놓고 볼때 앞으로 調節委는 進行되기 힘든 狀況에 處해 있다고 할 수 있다. ¹³⁵⁾

따지고 보면 北韓側의 對南戰略의 基底가 「赤化統一革命」에 있는

바 이를 效果的으로 遂行하기 위한 한 方法으로 南北對話를 利用
 하려 한 그들의 속셈을 勘案한다면 이러한 事態의 惹起는 理解하
 기에 어렵지 않다. 北韓은 南北對話를 對外的으로는 國際社會에서
 의 南北韓 地位 平準化를 目標로 그리고 對南目標로는 南韓社會의
 反共體制 弱화 및 平和「무드」 高揚에 의한 同調勢力 扶植에 두
 어 왔다. 그러나 이른 바 「革命」과 「鬭爭의 路線」이 現實的
 으로 實現될 수 없다는 判斷이 이런 聲明이 나오게 된 背景이
 아닌가 생각된다. ¹³⁶⁾ 어느 면에서 這間 北韓은 調節委員會 過程
 에서 政黨, 社會團體 등 各界各層을 網羅한 廣範한 政治協商을 내세
 워 所謂 「大民族會議」의 構成을 主張해 왔다는 點과 金日成의
 「平和統一 5大綱領」에서도 「大民族會議」 構成을 闡明했다는 點
 등을 勘案할 때 金英柱의 聲明은 調節委를 解散시키려는 意圖로
 解釈될 수 있으며, 그들이 主張하는 「大民族會議」와 같은 別途의
 會議體 構成에 그 底意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73年 11月 15日 中斷狀態에 있는 南北對話의 再開를
 위한 諸般問題를 協議하기 위해 南北調節委 幹事委員會를 열자
 는 韓國側의 提議에 대해 北韓側은 電話通知文을 통해 ① 6·23
 宣稱을 取消하고, ② 反共法·國家保安法 違反者를 釋放하고,
 ③ 政黨, 社會團體 등 各界各層의 代表로 南北調節委를 構成하자는
 등의 條件을 붙여 이같은 條件에 韓國側이 同意한다면 協議에
 應할 用意가 있다고 ¹³⁷⁾ 말한 點을 볼 때 北韓側이 南北調節委를
 「大民族會議」와 같은 會議體로 擴大 改編할 것을 構想하고

있음이 明白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 調節委員會 過程에서 提起된 南北 双方의 提案과 双方이 主張하는 交流와 合作의 内容 그리고 調節委의 機能 및 機構를 보면 <表 21~23> 과 같다.

<表 - 21> <南北調節委에서 提起된 双方提案>

韓 國 側	北 韓 側
1. 調節委運營細則 마련 2. 板門店 共同事務所建物 共同建立 3. 經濟 및 社会·文化分科 委 우선 構成	1. 外軍撤収, 兵力減縮, 外國으로 부터의 軍備導入中止, 平和協定 締結 2. 政黨, 社会团体등을 網羅한 政治 協商開催 (近者에는 各界各層을 網羅한 大民族會議 構成) 3. 政治·軍事·外交·經濟·文化 등 5個 分科委, 同時發足

<表 - 22> <南北韓 双方이 主張하는 交流와 合作의 内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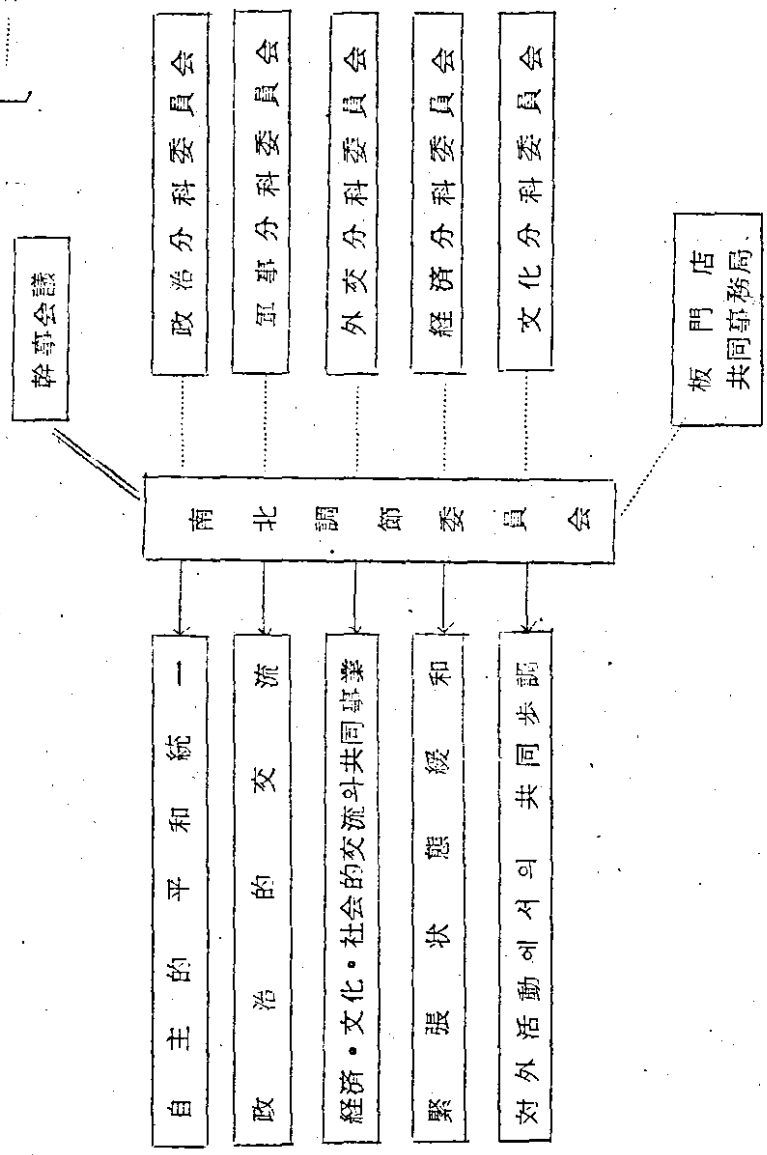
	韓 國 側	北 韓 側
經濟面	① 經濟人 物資·科學技術의 交流 ② 資源의 共同開發 ③ 商社의 交換常駐등 經濟的	① 北韓의 地下資源, 共同開發 ② 南北漁場開放, 共同漁撈作業 ③ 南韓의 灌溉工事共同推進 ④ 其他 双方의 經濟的 可能性

	韓 國 側	北 韓 側
社会・ 文化面	<p>共同利益 追求의 措置들 을 实践에 옮기는 것</p> <p>①學術・文化分野의 交流</p> <p>②體育分野의 交流와 國際 競技單一팀 構成</p> <p>③映畵・舞台藝術의 交流</p> <p>④考古學과 民族史의 共同 研究</p> <p>⑤固有言語의 保存을 위한 研究</p> <p>⑥各種社会人士와 團體交流</p> <p>⑦記者交流와 常駐</p> <p>⑧書信・電話・電報等 通信 의 交流</p> <p>⑨觀光分野의 交流등 社会的 共同利益과 便利를 追求 民族固有의 文化를 暢達 하는 事業을 实践에 옮 길 것</p>	<p>의 統一的 利用</p> <p>①民族語 統一共同研究</p> <p>②國史共同研究</p> <p>③藝術團・體育團交換, 單一民族 藝術團과 單一體育團 構成</p>
軍事面		共同防衛
外交面		對外活動에서의 共同步調

<表 - 23 >

< 南北調節委員會의 機能 및 機構 >

設置
 未設置



九. 結 論

여기서 一瞥을 要하는 것은 南北對話와 北韓 外交와의 相關關係인데, 既述한 바와 같이 그동안 北韓은 對內外戰略의 主要한 道具로 로서 바로 南北對話라는 名分을 利用해 왔다. 勿論 南北對話가 UN에서 韓國問題 上程 封鎖에 두차례나 그 効力을 發揮하기도 하였지만, 오늘에 와서 본 南北對話의 結果는 73年의 IPU.WHO . UN總會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北韓外交에 相當한 利點을 가져다 준 것이 事實이다. 지금와서 南北對話에 대한 評價를 多方面에서 해볼 때 ① 韓半島에서 戰爭發生을 抑制하려고 하던 國際的 關心과 努力은 相對的으로 줄어들었지만, ② 韓國問題에 대한 UN의 責任性의 弱化를 招來함으로써 駐韓UN軍 및 UNOURK의 地位를 危殆롭게 하여 마침내 UNCURK는 解体의 運命을 맞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UN軍司令部 解体論이 거세게 浮上하게 되었으며, ③ 「두個의 韓國」이 國際的으로 보다 広範하게 認定될 機微를 줌으로써 各國의 南北韓 同時承認의 名分이 돼 왔다고 할 수 있다.

以上에서 北韓外交에 대한 全般的인 分析을 試圖해 보았다. 오늘날 北韓은 對立的인 對外姿勢를 脫皮하여 汎世界的인 柔軟外交戰略을 펴면서 外交行動半徑의 擴張에 注力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 보았고, 北韓을 訪問했던 Mark Gayn의 말처럼 마지막으로 生存해 있는 Stalin主義者 金日成이 對內的으로는 Stalin主義 政權을

自由化하지는 않았지만, 對外的으로 이제는 Stalin式 外交政策이 効
效果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弱極的인 目標은 拋棄
하지 않은 채 自己自身과 그의 諸般政策들을 새로운 現狀에 適応
시키려고 努力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¹³⁹⁾ 것을 보았다. 한마디로 말
하면 70年代에 와서 對外政策의 戰術的 轉換을 決定한 후 總力外
交로 임했던 北韓의 外交는 分斷國 同時承認이라는 國際的 趨勢와
關聯하여 이제 바야흐로 全盛期를 맞이할 때가 온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 앞으로 展開돼 나갈 北韓外交의 動向을 要略해 보
기로 한다.

첫째 北韓은 어떤 紛争에 있어서든간에 蘇聯이나 中共에 如前히
依存할 것이다. 70年代의 外交性向은 親中共路線을 걸을 것이다.

둘째 中立諸國과는 紐帶關係를 擴大시킴과 同時에 電報修交戰略으로
外交關係樹立에 注力할 것이다.

셋째 西萬諸國과는 6個年計劃 遂行에 必要한 先進技術과 資本導
入을 위한 交易擴大라는 經濟外交를 통해 接近을 試圖할 것이다.

네째 日주과의 交流를 積極的으로 推進하면서 美國과도 接近을 企
圖하여 韓國에 대한 逆孤立化政策을 展開하는데 努力할 것이다.

다섯째 對UN外交에 있어서는 金日成의 「平和統一 5大綱領에 立
立脚한 基本態度를 堅持하면서 韓國問題를 上程하여 駐韓UN軍司令部
部 解体를 위해 腐心할 것이다.

여섯째 對南戰略에 있어서는 역시 金日成의 5大綱領의 基礎위에
人民民主主義革命路線을 追求하면서 그 一環으로써 平和統一攻勢를
계속 橫擴化할 것이다.

11월쯤에 南北對話에 있어서 赤十字會談에서는 이른바 「環境造成問題」를, 調節委에서는 軍事的 對峙狀態 解消등 軍事的 先決問題와 各分科委 同時設置問題를 계속 主張할 뿐만 아니라 調節委를 「大民族會議」와 같은 會議체로 擴大 改編하려고 할 것이다.

여덟째 統一戰略에 있어서는 韓國의 不可侵協定締結→共和共存 制度化→平和統一 与件造成→窮極的인 平和統一이라는 戰略에 대해 北韓은 平和協定締結(現狀에서 協定締結·衆文中에서 相互攻擊치 않을 것을 允諾·南韓에서 美軍撤收·最後로 双方減軍)→南北聯邦制實施→窮極的인 共產化統一이라는 戰略으로 맞설 것이다.

이와 關聯하여 여기서 北韓이 앞으로 擇할 수 있는 對南戰略體系에 關係 一瞥해 보면, 大體로 거기에는 세 가지로 把握될 수 있다. 즉 「戰爭에의 길」, 「南北共存의 길」, 그리고 「非戰非和의 길」이다. 이 중 戰爭에의 길은 總合的으로 보아, 擇할 確率이 稀薄한 것으로 評價할 수 있고,⁽¹³⁹⁾ 南北共存의 길은 ① 過去의 強硬路線의 修正이라는 國內政治的 犧牲 ② 韓國과의 競爭에서 不利한 條件등의 難點을 北韓에 안겨주고 있다는 面에서 充分한 代替利益이 앞서지 않는한 北韓의 共存戰略追求는 容易하지 않을 것이며, 非戰非和의 길은 즉 戰爭이 없는 狀態지만 어떤 制度化된 平和도 追求하지 않는 消極的 平和의 길인데, 長期的으로 보면 이 政策은 內部로는 國民과, 外部로는 國際社會를 함께 속이면서 有利한 戰略이 생겨질 수 있는 与件造成을 해가면서 때를 기다리는 戰略이라 할 수 있다. 北韓이 這間 南北對話를 拒否하고, 對南非難

을 再開하고, 西海上에서 緊張을 誘發하고, 또한 韓國의 1.18 南北
韓 不可侵協定 提議를 反對하고, 美國에 대해 平和協定을 提議하는
등 一連의 事態는 이러한 非戰非和의 戰略의 所産이라 解稜할 수
있다. 따라서 現 時點에서 北韓이 非戰非和의 戰略을 擇할 可能性
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140)

以上과 같이 볼 때 如斯한 對南戰略까지 包含한 北韓外交에 對
처해야 할 韓国外交의 課題는 실로 甚찬 것이라 아니 할 수 없
다. 실상 오늘의 韓国外交는 國家安保를 確保하기 위한 安保外交,
統一을 向한 積極的인 接近을 試圖해야 할 統一外交, 持續的인 經
濟發展을 위한 經濟外交등을 殿擧해야 될 三重苦的인 試鍊에 直面해 있다.
그런가 하면 中共, 蘇聯과의 關係改善도 摸索해야 할 對共產國門戶
開放外交에다 南北對話 促進 및 平和共存體制構築을 위한 對北政策,
등 莫重한 課題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韓國의 外交는 現 70年代
의 轉換期的 狀況變化에 對應하면서 이러한 課題들을 차분히 解決
할 수 있는 能力과 智慧를 發揮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릇 『外交政策의 目的은 國家利益 概念으로 定義되어야 한다』
는 Morgenthau의 말처럼, 또 『우리에게는 永遠한 벗도 없으며,
永遠한 敵도 없다. 우리에게는 永遠한 國家利益만이 있을 뿐이다.
이와같은 利益을 追求하는 것이 우리의 義務이다』 (142)라고 한
Palmerston의 말처럼 韓國의 外交도 現今의 實利追求時代에 있어
國家利益追求를 그의 第一義的 方向으로 設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國家가 追求하는 一般的 繼續的인 目的」이 國家利益이라고

한다면 韓國의 外交는 國家目的에 寄與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一國의 外交政策의 樹立過程에는 여러가지 重要한 作業이 必要하지만 그 중의 하나를 相對國의 目標를 正確하게 把握하는 것인 만큼, (143) 韓國의 外交도 北韓의 目標를 客觀的으로 把握하며 多邊化된 北韓 外交의 積極的인 攻勢에 對處하는 方向으로 그 政策이 樹立되어야 한다. 여기서 參考로 韓國과 北韓의 推定目標를 보면 (144) <表-24>와 같다.

<表-24> 南北韓의 目標比較

韓國의 目標	北韓의 目標
1. 韓國의 安保와 存立	1. 北韓共產政權의 安全과 存立.
2. 安保 및 生活水準向上을 爲한 高度經濟成長	특히 金日成의 起 Stalin 體制 保全
3. 北韓社會의 開放, 自由化로 韓半島의 安定確保	2. 北韓의 國際地位向上
4. 經濟, 文化, 社會交流를 통한 南北의 機能的 統合	3. 安保 및 最低限의 消費者充足을 爲한 高度經濟成長
5. 長期間에 걸친 機能的 統合후 에 올 政治的 統一	4. 友邦 및 中立國으로부터 韓國을 外交的으로 孤立시키는 것
	5. 韓國으로부터의 美軍撤收
	6. 「南朝鮮革命」 與件造成
	7. 赤化統一

< 註 >

註：1) 南北韓과 強大國의 關係에 對한 分析으로는, Morton Abramowitz, Moving the Glacier: The Two Koreas and the Powers, Adelphi Papers No. 80,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London, September 1971.

2) Rinn-Sup Shin, "Changing Perspectives in North Korea: Foreign and Reunification Policies", Problems of Communism, Washington, D.C., January~February 1973, P. 65.

3) 黨規約 前文中에서 (共產黨問題研究所, 北韓關係資料集, 1973, P. 844: 黨規約 全文은 PP. 842~855).

4) Ibid., P. 831 (憲法 全文은 PP. 831~842).

5) 韓國反共聯盟, 共產主義 理論과 實際 (理論, 批判 및 北韓 分析), 1968. P. 287 參照.

6) 共產黨問題研究所, 上揭書, P. 843 (黨 綱領 全文은 PP. 842 ~ 3).

7) 黨規約 前文中에서 (Ibid., P. 844).

8) Ibid., P. 832.

註：9) 韓國反共聯盟, 上揭書, PP. 287~8 參照.

10) 1971. 3.30 蘇聯 共產黨 第 24 次 大會에서 Brezhnev가
행한 基調政治報告에서 밝힌 外交政策路線.

11) 1969. 4 中共 黨「九全大會」에서 행한 林彪의 政治報告
와 1973. 8 「十全大會」에서의 周恩來의 政治報告 및
同 「十全大會」에서 採択한 黨規約에서 밝힌 外交政策路線
(黨規約 全文은 外務部 亞洲局, 中共概況, 1973. PP. 87 ~
94).

12) 이에 관한 論文으로서 金容郁, “蘇聯外交政策의 形成과
「이데올로기」(「레닌」에서 「브레즈네프」까지)”, 政·經
研究, 1973.11. PP. 194~206; 趙在瑾, “中共의 外交政策과
統韓問題”, 統一研究協會, 統一研究, 第 1 輯, 1972. PP. 57 ~
71 參照.

13) Peter van Ness, Revolution and Chinese Foreign
Polic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1,
PP. 244~5 參照.

14) 國土統一院, 國土統一, 1973. 5, P. 125 (以下부터 「國土統
一」로 表示함).

15) Ibid.

16) 臚史林, “外交的 側面에서 본 北韓의 自主性”, 「國土統一」,
1973. 5. P. 131.

註：17) 이 時期의 北韓의 外交活動에 대해서 Byung Chul Koh, The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New York, Praeger, 1969, PP. 169~173 參照.

18) 遠東問題研究所, 國際問題, 1972. 5. P. 53 (以後부터 「國際問題」로 表示함).

19) Ibid., PP. 51~ 3과 北韓研究所, 北韓, 1972. 1. P. 104 및 1973. 1. PP. 248, 256 參照 (以下부터 「北韓」으로 表示함).

20) 「北韓」, 1972. 12. P. 244.

21) 1972. 12. 30 金一의 政務院 總理 就任演說에서 (東亞日報 73. 1. 4, 參照).

22) 共產黨問題研究所, 北韓總鑑 ('45~'68), 1968, PP. 667~668 (舊憲法 全文은 PP. 666~671).

23) 여기에는 北韓이 修交하긴 했으나 獨立國이 아닌 民族解放團體 (「베트콩」), 亡命政權 (「시아누크」), 植民地 (「기네비소」) 등을 除外하였다.

24) 韓國은 74年 5月 現在 94個國과 大使級 外交關係를 樹立하였는데 그중 常駐大使館은 57個國이다. 韓國과의 大使級 外交關係 樹立國을 보면, 日本・中華民國・「필리핀」・越南・「크메르」・泰國・印度・「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濠洲・「뉴우질랜드」・「캐나다」・美國・「멕시코」・「자미카」

「콜롬비아」·「페루」·「브라질」·「칠레」·「파나마」
 「우르과이」·「에쿠아돌」·「아르헨티나」·「베네주엘라」·
 「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핀란드」·「네덜란드」
 「벨기에」·英國·仏蘭西·西獨·「오스트리아」·「스위스」·
 「스페인」·伊太利·「그리스」·「로마」敎皇庁·「이란」·
 「터키」·「사우디아라비아」·「튀니지」·「모로코」·「에치
 오피야」·「케냐」·「루안다」·「우간다」·中央「아프리카」
 「카메룬」·「자이레」·「오트 볼타」·「코트디브와르」·
 「리비아」·「토코」·「가봉」·「제네갈」(以上 57 個國은
 常駐大使館)·「아프카니스탄」·「앵그라데쉬」·「피지」·
 「통가」·「西사모아」·「파테말라」·「엘살바도르」·「혼두
 라스」·「니카라구아」·「코스타리카」·「도미니카」·「아이
 티」·「가이아나」·「볼리비아」·「파라과이」·「아이슬란드」
 「룩셈블그」·「말타」·「포르투갈」·「이스라엘」·「요르단」
 「오만」·「코토르」·「감비아」·「시에라레온」·「다호메」
 「니제르」·「차드」·「말라위」·「보츠와나」·「스와질랜드」
 「레소토」·「말라카사」·「말디브」·「모리셔스」(以上
 35 個國은 兼任大使館)· 그리고 最近에 修交한 「네팔」
 과 「라오스」에는 아직 大使館 未設置

註：25) 韓國은 「버마」·「싱가포르」·「파키스탄」·「이집트」에
 總領事館을 設置하고 있다.

26) 韓國이 通商代表部를 設置한 國家는 「레바논」·「쿠웨트」
 「스리랑카」이다(「라오스」에도 通商代表部를 設置하고 있
 었으나 74. 5. 31 大使級外交關係 樹立에 合議하였다).

27) 車權, “北韓의 貿易과 그 特徵”, 「國際問題」, 1972. 10.
 P. 23.

- 註: 28) 韓國貿易協會, 北韓의 貿易, 1972. 9. 11과 金貞世, “北韓의 對外貿易”, 中央日報社 東西問題研究所, 1973, PP. 119 ~120 參照.
- 29) 日本 官房內閣調査宅, “最近의 北韓經濟情勢”에 관한 分析 (서울新聞, 73.12.20 參照)과 金一의 報告要旨(「北韓」, 1973.11, PP. 40~41 參照).
- 30) 北韓의 經濟外交의 具體的 展開狀況은 海外經濟研究所, 東西經濟, “東西經濟日誌” 및 “北韓經濟日誌” 參照. 그리고 註(27), (28)에서 引用한 것 外에 北韓의 貿易에 관하여 俞完植, “北韓의 外國貿易分析” * 亞細亞問題研究所 (高大), 亞細亞研究, 1967年 9月号; 李重根, “北韓의 對外貿易”, 亞細亞問題研究所, 韓國統一과 體系再統合, 1972, PP. 198~243 參照.
- 31) 朝·蘇 및 朝·中軍事條約 全文은 共產黨問題研究所, 北韓 總鑑 (上揭書), PP. 689~690.
- 32) 이에 對하여 韓·美防衛條約 第3條는 「各者의 憲法上의 手續에 따라」(in accordance with in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行動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 33) 韓·美防衛條約도 「無期限으로 有効하다」(6條)고 하여 半永久的인 性格을 띄고 있다.
- 34) 金南植, “北韓의 軍事外交”, 「北韓」, 1972.12, P. 163.

註：35) Ibid., P. 160.

36) 声明 全文은 國防大学院 安保問題研究所, 安保問題研究(資料編), 1972, PP. 539~542.

37) 이에 관하여 Frang Michael, "새 中共政策과 韓國統一", PP. 80~83; 韓己植, "蘇聯의 極東政策과 韓國統一", PP. 134~5 (亞細亞問題研究所, 韓國統一과 國際情勢, 1972).

38) 「國際問題」, 1972. 1, P. 50.

39) 軍裝備面에서의 南北韓 比較는 <表-11>에서는 省略하였다. 이의 詳細한 것은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73~74", London, PP. 53~54 参照.

40) 金炯旭, 共產主義 活動과 實際, 光明出版社, 1972, P. 858 (以下부터 「共產主義 活動과 實際」로 表示함).

41) 極東問題研究所, 世界共產國總鑑, 1972, P. 897 (以下부터 「世界共產國總鑑」으로 表示함).

42) 柳憲, 北韓二十年, 大韓反共教育院, 1966, P. 180.

이 時期의 北韓·中共關係에 관하여 金一平, "中共의 對北韓 關係", 亞細亞問題研究所, 韓國統一과 國際情勢, 1972, PP. 98~106 参照.

43) 「世界共產國總鑑」, P. 854.

註：44) Ibid., P. 855.

45) 「國土統一」, 1971, 5, P. 70.

46) 「世界共產黨總鑑」, PP. 897~8 및 857.

47) 「北韓」, 1973.11, P. 41; 「國際問題」1973.11, P. 10.

48) 이의 배경에 관하여 盧史林, 「外交의 側面에서 본 北韓의 自主性」(上揭論文), PP. 123~131; 金一平, 「中共의 對北韓關係」(上揭論文), PP. 86~107; 國際問題研究所, 「中·蘇紛爭이 北韓 및 統韓問題에 미치는 影響」, PP. 110~113; Roy U.T. Kim, 「Sino-North Korea Relation」, Asian Survey, August 1968 등 參照.

49) 韓己植, 「蘇聯의 極東政策과 韓國統一」(上揭論文), P. 134 ; Joungwon Alexander Kim, 「Soviet Policy in North Korea」, World Politics, Vol. XXII, January 1970 參照.

50) 韓己植, Ibid.,; Robert R. Simmons, 「North Korea: Year of the Thaw」, Asian Survey, January 1972, PP. 29~31 參照.

51) 다시 말하면 北韓은 그들에게 有利할 경우에는 中共, 蘇聯中 어느 쪽이라도 支持할 수 있는 立場을 取한다. (Harold C. Hinton) 「Chinese Policy toward Korea」, 「國際問題」, 1974. 1, P. 43.

- 註：52) Robert A. Scalapino, "China and the North-South Negotiations", 韓國國際關係研究所, 國際關係研究所, 第4卷 3.4号, 1973.10, P.85.
- 53) Ibid., P.80.
- 54) Robert A. Scalapino, "The Nature of the North Korean Regime", China Report, 國防大学院 安保問題研究所, 大戰略, 第14卷 3.4号, 1972, P.151 参照.
- 55) 北韓의 对東歐關係外交에 관하여 金泰弘, "北韓의 对東歐 關係", 「北韓」, 1973. 1, PP.269~277 参照.
- 56) Robert A. Scalapino, "The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China Quarterly, No. 14, April-June 1963, PP.30~50 参照.
- 57) ① 領土主權, 相互尊重 ② 相互不可侵 ③ 內政不干涉
④ 互惠平等 ⑤ 平和共存
- 58) 「世界共產黨總鑑」, P.919.
- 59) Ibid., PP.919~920.
- 60) Ibid., P.897
- 61) 韓載德, 韓國의 共產主義와 北韓의 歷史 (共產主義 理論 批判 全書 第5卷), 内外文化社, 1965, PP.315~8 参照.
- 62) 「國土統一」, 1971. 5, P.121 参照.

- 註：63) 北韓의 對中立國外交에 關하여 金裕甲, “北韓의 對亞·阿政策”, 金俊燁編, 中共國의 將來, 汎文社, 1967, PP. 271~287 參照.
- 64) Ibid., P. 287. 「北韓」, 1973. 5, P. 300. 「國土統一」, 1970. 11, PP. 61~2等 參照.
- 65) 東亞日報, 73. 9. 10 參照.
- 66) 「共產主義 活動과 實際」, P. 861.
- 67) 72年 12月 最高人民會議 第5期 1次會議에서의 金日成 演說(「北韓」, 1973. 3, P. 166 參照)과 金一의 政務院 總理 就任演說(東亞日報, 73. 1. 4 參照).
- 68) 「共產主義 活動과 實際」, P. 861.
- 69) 北韓의 對日政策에 關하여 康仁德, “北韓의 對日政策”, 金俊燁編, 中共國의 將來(上揭書), PP. 249~269 參照.
- 70) 北韓의 對日關係에 關하여 Rinn-Sup Shin, “Changing Perspectives in North Korea”, op. cit., PP. 66~7 參照.
- 71) 各 日刊紙, 73. 12. 28 參照.
- 72) 73. 2. 2 金日成의 日本 東京新聞 編輯局長과의 會見(東京新聞, 73. 2. 3 參照).

註：73) 日本의 對北韓政策에 關하여 金正明, “日本의 對北韓政策”
亞細亞問題研究所, 韓國統一과 國際情勢 (上揭書), PP. 255~
273 參照.

74) 北韓의 對美姿勢에 關하여 Rinn-Sup Shin, “Changing Per-
spectives in North Korea”, op. Cit, p. 57. 曾淳熙, “北韓
의 對美姿勢”. 自由公論, 1972. 8月, pp. 66~72 參照.

75) 「北韓」1 1972. 7月, pp. 76~7 參照.

76) 國防大學院 安保問題研究所, 國防研究, 第15卷 1号, 1972.
6月, P. 186.

77) 各 日刊紙, 72. 7. 1 參照.

78) 新東亞, 1972. 5, P. 59.

79) Jerome A. Coher, “A Window Half Opened on North
Korea”,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October 31,
1972.

80) 이러한 觀點에서 金瓊元, “緊張緩和와 戰爭抑止 : 美國의
亞細亞政策에 關한 考察”, 韓國國際關係研究所, 國際關係研究
第3卷 3.4号, 1972, PP. 15~28; Kihl Young Whan,
“Nixon Doctrine and South-North Korean Relations”,
同 國際關係研究, 第4卷 3.4号, 1973, PP. 105~120
參照.

81) 各 日刊紙, 72. 7. 14 參照.

註：82) 各 日刊紙, 73.10.1 參照.

83) 「이 憲章의 如何한 規定도 本質上 그 國家의 國內管轄權 內에 있는 事項에 干涉할 權限을 國際聯合에 賦與하는 것 은 아니고, 또 그러한 事項을 이 憲章에 基因하여 付託하 여 오라고 加盟國에 대하여 要求하는 것도 아니다」.

84) 「이 憲章의 如何한 規定도 第二次 世界戰爭에 이 憲章의 署名國의 敵이었던 國家에 관한 行動中 그 行動에 대한 責任을 가지는 政府가 이 戰爭의 結果로서 取하고 또는 許可하는 것을 無効로 하고 또는 排除하는 것도 아니다」.

85) 73. 6. 15 金日成의 日本 東京放送局 報道局長과의 會見 (「國際問題」, 1973. 8, P. 48 參照).

86) 「北韓」, 1973.10, P. 66.

87) 서울新聞, 73. 9. 10 參照.

88) 「北韓」, 1973.11, P. 46 과 金泰瑞, “北韓의 對UN 備忘 錄의 虛實”, 「北韓」, 1973.11, PP. 126 ~ 133 參照.

89) 各 日刊紙, 73.11.15 參照.

90) 東亞日報·中央日報, 73.10.1 參照.

91) 金宅煥, “南北韓 同時加入의 展望과 戰略”, 政經研究, 1973.10, P. 98; 北韓의 對UN 政策에 關하여 權敏雄.

“北韓의 對 UN 政策”，「國際問題」，1973.11，PP. 51~6
參照。

註：92) 韓國은 UN 傘下 13 個 專門機關중 ILO (國際勞動機構)를
除外한 FAO (食糧農業機構)，UNESCO (教育科學文化機構)，
WHO (世界保健機構)，IMF (國際通貨基金)，IBRD (國際復
興開發銀行)，IDA (國際開發協會)，ICAO (國際民間航空機
構)，UPU (萬國郵便聯合)，ITU (國際電氣通信聯合)，WMO
(世界氣象機構)，IMCO (政府間海事協議機構)，IFC (國際金融
公社) 등 12 個의 機構에 加入해 있으며，北韓은 現在
WHO, UPU 에만 加入해 있다. 한편 韓國은 UN 直屬機構인
UNICEF (兒童救濟基金)，UNDP (開發計劃)，CND (麻藥委
員會)，UNCTAD (通商開發會議)，UNIDO (工業開發機構)，
UNCDF (資金開發基金)에 加入해 있으며，北韓은 現在
UNCTAD 에만 加入해 있다.

93) 各 日刊紙，72. 7. 17 參照。

94) 決議案 全文은 朝鮮日報，73. 9. 13.

95) 決議案 全文은 韓國日報，73. 9. 12.

96) 合意聲明 全文은 各 日刊紙，73. 11. 21.

97) 東亞日報，73. 11. 22 參照。

98) 北韓代表 李鍾木이 政治委에서 行한 무번제 演說 參照
(東亞日報，73. 11. 23)。

註：99) 北韓의 統一政策에 관한 分析으로서 國際問題研究所, “北韓 統一政策의 戰略的 및 戰術的 變化에 관한 研究와 그 對備策”, 研究論叢, 第1卷1号, 1968, PP. 1~33; 國會圖書館 立法調查局, “統一問題에 對한 北韓의 提案과 그 底意”, 統一自書(國會 國土統一研究 特別委員會 報告書), 1971, PP. 99~113; 金南植, “南北韓의 統一論 및 統一政策”, 東亞日報社 安保統一問題調查研究所, 東·西獨과 南·北韓, 1973, PP. 411~429; Sang-Woo Rhee, Themes of North Korea's Unification Messages; A Study on Pattern Shifts (1948~1968), 韓國國際關係研究所, 國際關係研究, 第4卷2号, 1973, PP. 7~36; Soon Sung Cho, “The Politics of North Korea's Unification Policies 1950~1965”, World Politics, Vol. 19, No. 2, January 1967, PP. 218~241. 그리고 北韓의 統一問題 提案에 關해서는 極東問題研究所, 統一問題提案資料集, 1972, PP. 31~116; 國會圖書館, 立法調查局, 統一自書(上揭書), PP. 191~243; 東亞日報社 安保統一問題調查研究所, 安保統一問題基本資料集, 1971, PP. 395~326 등 參照.

100) 金日成의 事業總和報告중 “南朝鮮革命과 祖國統一을 위하여”라는 演說에서(東亞日報社 安保統一問題調查研究所, 安保統一問題基本資料集(北韓篇), 1972, P. 220; 演說全文은 PP. 211~221). 以後부터 「安保統一問題基本資料集」(北韓篇)으로 表示함.

101) 北韓의 「南朝鮮革命」에 關한 詳細한 分析은, 金南植, “北韓의 對南工作本意”, 極東問題研究所, 韓國統一의 理論的 基礎, 1972, PP. 416~438; 金南植; “北韓의 南朝

鮮革命論 分析”，韓國反共聯盟，自由公論，1973. 7, PP. 204
213; 李基遠，“北韓의 戰略”，韓國政策科學研究所，論叢(第
2輯)，1972, PP. 137~164 參照。

註：102) 「安保統一問題基本資料集」(北韓篇)，P. 211; 이 5次 党
大會에서 金日成이 提起한 南朝鮮革命 측, 人民民主主義革命
과 祖國統一問題에 관한 分析으로 金南植, “朝鮮勞動黨 第
5次大會”, 匪細亞問題研究所, 北韓政治體系研究, 1972,
PP. 149~154 參照。

103) 北韓의 對南人民民主主義 革命戰略에 대해 詳細한 것은
梁好民, 北韓의 「이데올로기」와 政治(第2卷), 匪細亞問題
研究所, 1972, PP. 197~243; 康仁德, “北韓 人民民主主義
革命理論의 分析”, 韓國國防學會 國防學報(第5輯), 1971,
PP. 93~110; 康仁德, “北韓 「人民民主主義革命」의 本質
과 對策”, 「世界共產黨總誌」, PP. 793~8 參照。

104) 金 準, “北韓의 人民革命戰略의 解剖”, 「國土統一」,
1973. 5, P. 109.

105) 이에 관하여 崔 榮, “北韓의 人民民主主義 革命路線과
平和攻勢”, 國防大學院 安保問題研究所, 第15卷2号, 1972,
12月, PP. 7~20; 李基鐸, “開放外交時代に 있어서의 共產
主義 平和戰略에 대한 對備策”, 韓國反共聯盟, 自由公論,
1973. 12, PP. 184~205 參照。

106) 이에 관하여 Rinn-Sup Shin, “North Korean Policy
Toward South Korea”, Young C. Kim(ed.), Major

Powers and Korea, Research Institute on Korean Affairs (Silver Spring, Maryland), 1973. PP. 97 ~104; 「共產主義 活動과 實際」, PP. 826~830 參照.

- 註: 107) 「安輯統一問題基本資料集」(北韓篇), P. 219.
- 108) Ibid., PP. 252~4 (演說全文은 PP. 221~257).
- 109) 이 8個項 統一方案의 具體的 內容 및 그 背景과 動機에 關하여 板東問題研究所, 北韓의 統一論議 解剖, 1972, PP. 43~55 參照.
- 110) 「安輯統一問題基本資料集」(北韓篇), P. 267 (全文은 PP. 256~268).
- 111) 讀売新聞, 72. 1. 11 과 14.
- 112) The New York Times, 72. 5. 31.
- 113) The Washington Post 72. 6. 26 과 每日新聞, 72. 6. 27 과 28 및 讀売新聞, 72. 6. 26.
- 114) 「國土統一」, 1973. 5, P. 121
- 115) 每日新聞, 72. 9. 19 와 20.
- 116) 金 一의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外國의 內政干涉을 終息시킬데 대하여" 라는 報告에

서 (「北韓」, 1973. 6, PP. 203~4 參照).

註: 117) 同 最高人民會議 第5期2次會議에 대한 分析은 崔光石,
「統一問題에 관한 北韓의 最近動向」, 「國土統一」, 1973.
5月, PP. 132~6 參照.

118) 「國土統一」, 1973: 8, P. 96.

119) 이 5大綱領에 대한 分析은 李明載, 「北韓 統一政策의
戰略的 側面」, 「國土統一」, 1973. 8, PP. 96~102과 北
韓研究所, 「「平和統一」5大綱領」이란?」 「北韓」, 1973.
10月, PP. 50~70 參照.

120) 李明載, Ibid., P. 99. 이 「大民族會議」 提議에 대한
分析은 北韓研究所, 「왜 「大民族會議」를 主張하는가?」,
「北韓」, 1973. 9, PP. 48~58 參照.

121) 南北聯邦制 主張에 대한 分析은 北韓研究所, 「왜 「南北聯
邦制」를 主張하는가?」, 「北韓」, 1973. 9, PP. 28~47;
「國際問題」, 1972. 11, PP. 32~40 (「北韓의 聯邦制 統一
論 解剖」); 蔡熙駿, 「南北聯邦制」와 「聯合政府論」의
比較」, 「北韓」, 1973. 10, PP. 104~113; 朴在圭, 「聯邦制
- 2 概念의 周遊」, 政經研究, 1973, 12, PP. 36~43 參照.

122) 「北韓」, 1973. 9, P. 31 參照.

123) 俞光震, 「南北關係와 統一問題」, 東國大安保研究所, 安保研究,
第3号, 1973. P. 113.

註：124) 演說全文은 「安保統一問題基本資料集」(北韓篇), PP. 81~96.

125) 俞光震, 上掲論文, P. 112와李明載, 上掲論文, P. 97 參照.

126) 俞光震, Ibid., P. 106.

127) Ibid., PP. 106~7.

128) 南北對話의 背景에 關하여 Astri Suhrke and Charles E. Morrison, "The Koreas; Negotiating from Balanced Strength", The World Today, Vol. 28, No. 11, November 1972(London), PP. 493~500; Young-Whan Kihl, "Korean Response to Major Power Rapprochement", Young C. Kim (ed.) Major Powers and Korea, Research Institute on Korean Affairs, 1973(Silver Spring, Maryland), PP. 139~164; Han-Kyo Kim, "South Korean Policy Toward North Korea", Ibid., PP. 85~104; 宋建鎬, "새 南北關係의 展開", 新東亞, 1972. 8; Walter C. Clemens, Jr., "Grit at Panmunjom; Conflict and Cooperation in a Divided Korea", Asian Survey, June 1973, PP. 531~559 등 參照.

129) 73. 3.22 平壤에서 열린 第5次 赤十字會談 때 晚餐會에서의 朴成哲 演說(朝鮮日報, 73. 3.23 參照).

130) 이에 關하여 禹載潤, "北韓의 對南戰略面에서 본 赤十字會談", 「世界共產閣總鑑」, PP. 813~820; 金泰瑞, "北韓의

基本戰略과 赤十字會談”, 「國土統一」, 1972. 4, PP. 23~
28 參照.

註: 131) 韓國日報, 73.11.29 參照.

132) 72.12. 4 朴成哲의 內外記者와의 會見에서 (每日新聞, 朝
日新聞, 72.12. 6 參照).

133) 註 (129) 와 同

134) 「北韓」, 1973.10, PP. 76~8. 「國際問題」, 1973.10.
PP. 12~3 參照.

135) 金英柱 声明의 背景과 底意에 대하여, 申相楚, “南北韓
對話中斷이 意味하는 것”, 「北韓」, 1973.12, PP. 130~
137; 兪完植, “北韓의 南北對話 態度”, 「北韓」, 1973,
10, PP. 80~88; 金泰瑞, “金英柱 声明의 背景과 그 底
意”, 「北韓」, 1973.10, PP. 34~42; 朴東雲, “重大局面
에 直面한 南北關係”, 「北韓」, 1973.10, PP. 43~ 9;
宋文映, “8.28 金英柱 声明과 南北對話의 展望”, 「北韓」,
1973.12, PP. 164~170; 吉成喆, “北韓의 8.28 声明의
背景과 底意”, 「國際問題」, 1973.10, PP. 12~15;
李聖根, “北韓의 所謂 8.28 声明의 底意”, 「國土統一」,
1973. 9, PP. 73~75 등 參照.

136) 韓東元, “突風맞은 南北會談”, 서울新聞, 73. 8.31 參照.

137) 各 日刊紙, 73.11.17 參照.

註：138) Mark Gayn, "The Cult of Kim", The New York Times Magazine, October 1, 1972.

139) U.S. News and World Report (Robert P. Martin, "Out of 3 Decades of Turmoil; A New Asia Emerges"), January 14, 1974 (韓國日報, 74.1.11과 東亞日報, 74.1.8.參照).

140) 李相禹, "北韓이 갈 수 있는 길", 政經研究, 1974. 1, PP. 144~6 參照.

141)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2nd ed., 1954), P. 9.

142) Norman L. Hill,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 Evanston, 1963, P. 103.

143) 趙在瑾, "多極構造의 意味規定" 政經研究, 1973. 7, P. 142.

144) 이의 南北韓의 推定目標는 金瓊元, "南과 北", 世代, 1974. 1, PP. 144~5.

<主要 參考 書籍>

- (1): 共產黨 問題研究所, ① 北韓關係資料集 (1973), ② 北韓總鑑 45~68 (1968),
- (2): 極東問題研究所, ① 世界共產黨總鑑 (1972), ② 統一問題提案資料集 (1972), ③ 北韓의 統一論議解剖 (1972), ④ 研究論叢, 第16号 (1972), ⑤ 國際問題 各月号
- (3): 國際問題研究所, ① 北韓現況 (1973), ② 研究論叢, 第5号 (1970), 1~1号 (1968), 12号 (1971)
- (4): 高大 亞細亞 問題研究所, ① 北韓 政治体系研究 (1972), ② 北韓 共產化 過程 (1972), ③ 韓國統一의 理論的 基礎 (1972), ④ 韓國統一과 体系 再結合 (1972), ⑤ 韓國統一과 國際情勢 (1972), ⑥ 梁好民, 北韓의 「이데올로기」와 政治, 第2卷 (1972), ⑦ 朴東雲 北韓統治機構論 (1964) ⑧ 方仁厚, 北韓 「朝鮮勞動黨」의 形成과 發展 (1967), ⑨ 亞細亞研究, 1967, 9月号와 1968, 1月号.
- (5): 國防大學院 安保問題研究所, ① 安保問題研究 資料編 (1972), ② 國防研究, 第15卷 1号 (1972.6月)과 15卷 2号 (1972.12月), ③ 大戰略, 第14卷 3.4号 (1972), ④ 「아시아」情勢分析 (國防大學院), 1974.
- (6): 國土統一院, ① 南北韓 外交力量 比較 (1972), ② 韓國統一 方案의 變遷過程 (1969), ③ 70年代의 「아시아」의 展望 (統一論叢), 1971, ④ 70年代의 韓國統一問題 (統一論叢), 1971,

- ⑤ 韓国統一의 諸問題 (統一論叢), 1970, ⑥ 国土統一, 各月号.
- (7): 外務部, ① 60年代의 韓国外交 (1971), ② 中央概況 (1973), ③ 中共의 对 亞細亞政策과 韓国統一 (1969), ④ 外交研究院, 統一問題研究 (第1輯), 1966, ⑤ 外交研究院, Foreign Affairs Review, vol. VI, No. 4, October 1972, ⑥ 外交研究院, 外交, 第1卷1号 (1965)와 6卷1号 (1971)
- (8): 東亞日報社 安保統一問題調査研究所, ① 安保統一問題 基本資料集 71年号와 72年号 (北韓篇), ② 東西独斗 南北韓 (1973).
- (9): 中央日報社 東西問題研究所, 北韓經濟 (1973).
- (10): 東国大 安保研究所, 安保研究, 第2号 (1972)와 第3号 (1973).
- (11): 韓國國際關係研究所, 國際關係研究, 第3卷3·4号 (1972, 10月) 第4卷 2号 (1973, 4月), 第4卷3·4号 (1973, 10月).
- (12): 海外經濟研究所, 東西經濟, 各月号.
- (13): 北韓研究所, 北韓, 各月号.
- (13): 北韓研究所, 北韓, 各月号.
- (14): 統一研究協會, 統一研究, 第1輯 (1972).
- (15): 韓國貿易協會, 北韓의 貿易 (1972).
- (16): 韓國國防學會, 國防學報, 第5輯 (1971).

- (17): 国会圖書館 立法調查局, 統一自書 (1971) .
- (18): 韩国反共聯盟, ① 共產主義 理論斗 實際 (理論 批判 및 實際分析), 1968 . ② 自由公論, 各月号 .
- (19): 韓載德, 北韓의 共產主義斗 北韓의 歷史 (共產主義 理論斗 現實批判 全書 第 5 卷), 内外文化社, 1965 .
- (20): 俞完植, 共產主義 政策斗 現實 (上同批判全書 第 4 卷), 内外化社, 1964 .
- (21): 俞完植 · 任台淳, 東西關係 20 年史 (上同批判全書 第 3 卷), 1966 .
- (22): 金俊燁編, 中共의 將來, 汎文社, 1967 .
- (23): 柳憲, 北韓二十年, 大韓反共教育院, 1966 .
- (24): 金昌順, 北韓十五年史, 知文閣, 1961 .
- (25): 朴東雲, 統一問題研究 (共產戰略論考), 对外文化社, 1960 .
- (26): 朴在圭, 北韓社会의 構造的 分析, 「미네루바」社, 1972 .
- (27): 金勳勳, 共產主義 批判斗 北韓 分析, 螢雪出版社, 1972 .
- (28): 國家安全保障會議, 事務局, 安全保障論叢, 1969 .
- (29): 國民倫理教育委員會, 勝共論, 良書閣, 1971 .

- (30): 李命植, 蘇聯對 東南亞政策, 法文社, 1972.
- (31): 羅昌柱, 中共外交論, 一潮閣, 1972.
- (32): 合同通信社, 合同年鑑, 1973.
- (33): 新東亞, 中央, 政經研究, 世代号 月刊誌 最近号.
- (34): 日本 共同通信社, 世界年鑑, 1973.
- (35): 日本 國際問題研究所, 國際問題, No. 95 (1968, 2月), No. 108
(1969, 3月)
- (36): 日本 世界週報, (1973.1.16), (1969.9.9), (1963.10.1)
- (37): 日本 外務省 情報文化局, 世界の動き, No. 262, 1972.11.5
- (38): Hans I.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2nd ed., Knopf, Inc., 1954
- (39) Norman L. Hill,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
Evanston, 1963.
- (40) Morton Abramowitz, Moving the Glacier: The Two Koreas and
the Powers, Adelphi Papers No. 80, London,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September 1971.
- (41) Robert A. Scalapino, Asia and the Major Powers: Implications
for the International Order, Standford, Hoover Institution,
1972.

- (42): Hoover Institution, Year Book on International Communist Affairs, 1972 & 1973.
- (43): Byung Chul Koh, The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New York, Praeger, 1969.
- (44): Peter Van Ness, Revolution and Chinese Foreign Polic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1.
- (45):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73-1974, London.
- (46): A. Doak Barnett (ed.), Communist Strategies in Asia, New York, Praeger, 1963.
- (47): Robert A. Scalapino (ed.), Communist Revolution in Asia,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5.
- (48): Glenn D. Paige, The Korean People's Democratic Republic, Stanford, Hoover Institution, 1966
- (49): Young C. Kim (ed.), Major Powers and Korea, Silver Spring, Maryland, The Research Institute on Korean Affairs, 1973.
- (50): Richard Nixon, U.S. Foreign Policy for the 1970's- Shaping a Durable Peace; A Report to the Congress, May 3, 1973.
- (51): U.S. Department of State, The Record on Korean Unification 1943-1960.
- (52): Problems of Communism, 70年 3~4月, 71年 11~12月, 72年 1~2月, 73年 1~2月.

- (53): Asian Survey, 65年 8月, 68年 8月, 70年 1月, 71年 7月, 72年 1月, 73年 6月.
- (54): China Quarterly, 63年 4~6月, 67年 7~9月.
- (55): World Politics, 67年 1月, 70年 1月.
- (56): Foreign Affairs, 67年 10月, 69年 10月.
- (57): World Today, 72年 11月.
- (58): China Report, 72年 1~2月, 3~4月.
- (59): U.S. News and World Report, 72.6.24, 74.1.14.
- (60): The New York Times (Weekly), 72.5.21.
- (61): The New York Times (Magazine), 72.10.1.